



충현선교교회(국윤권 목사)는 교회 창립 40주년을 맞아 지난 7월 18일(금)부터 20일(주일)까지 분당우리교회 이찬수 목사를 초청해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엡 6:10-13)라는 주제로 부흥회를 개최했다. ©기독일보

하나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일 기대할 때, 성결을 지킨다

충현선교교회 40주년 부흥회
이찬수 목사가 전한 고백
매일 밤 이대로 눈뜨지 않길
기도하던 그를 바꾼 것은....

삼손은 왜 몰락했을까? 다윗은
어째서 치명적인 죄를 범했을까?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 그리고
수많은 목회자들이 무너지는 공통
된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는 왜 이미 하나님이 허락하
신 것에 대해서는 흥미와 기대를 잃
고, 다른 영통한 것을 찾아 헤매는
가?

분당우리교회 이찬수 목사는, 이
질문들에 대해, 지난 7월 18일(금)
저녁 충현선교교회에서 열린 부흥
회에서 답변을 찾고자 했다.

그는 수많은 목회자들을 무너뜨
린 죄로부터 자신도 예외가 아니라
며, “그런 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전 10:12)는
말씀처럼, 목회자로서 철저한 영적
긴장감을 갖고 살아간다고 밝혔다.

“신앙의 타락은 시선의 타락으로
부터”

삼손의 타락을 다룬 사사기 16장
을 본문으로 “삼손이 갑자기 웅덩

이에 빠진 게 아니라, 오래전부터
증상이 있었다”며, 인간의 타락은
대부분 ‘시선’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했다. 그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
욕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쁨 외의
것을 탐할 때 시작된다”며, 하나님
께 주신 것에 감사하지 못할 때 정
욕이 문을 연다고 덧붙였다.

창세기 3장, 사무엘하 11장, 요한
일서 2장 등을 인용하며 “하와가 선
악과를 본즉, 다윗이 밋세바를 보았
을 때, 그리고 삼손이 이방 여인을
보았을 때 시작된 타락의 공통점은
모두 시선이었다”고 지적했다.

“하나님께 저 역시 성적인 타락

에 대해 예외가 아니라는 경고를
받았다. 경고를 받은 즉시, 제가
조치를 취한 것은 제 아내를 더
사랑하고, 사랑을 더 표현하는 것
이었다. 하나님이 이미 허락하신
것을 더 기뻐하고 더 사랑하고 더
표현할 때 허락하지 않은 것에 대
한 관심이 몰려간다.”

그는 5~6년 전 아내가 유방암
에 걸린 사실을 알게 되었다며,
이를 통해 소중한 것을 깨닫게 되
었다고 덧붙였다.

“우리가 배우자와 이대로 영원
히 살 거 같지만, 유방암이 배우
자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유
함을 가르쳐 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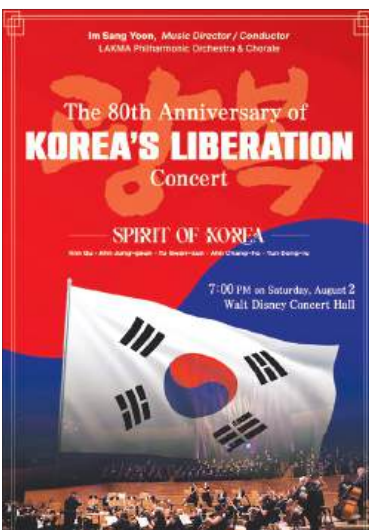
금식 중 소천하신 아버지... 남겨
진 가족에게 찾아온 극심한 가난

이 목사는 만 21살이던 1983
년, 대학교 2학년을 마치고 가족
과 함께 미국으로 이민왔다. 그러
나 그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아메
리칸 드림이 아닌, 아버지의 죽음,
이후 극심한 가난에 내몰렸다.

“아버지가 교회를 위해 금식기
도 하시던 중 돌아가셨다. 24시간
공부를 해도 모자랄 판에, 대학을
준비하기는 커녕 연로하신 어머
니를 봉양해야 했다. 영어를 못하
는데 돈을 벌어야 하니 안 해본
막노동이 없다. 처음에는 그러려
니 했는데 나중에는 구인광고를
봐도 더이상 지원할 데가 없었다.
제가 너무 무능해 보였다. ‘나는
밥이나 축내는 인간이야.’ 만 21
살 먹은 젊은 애가, 자기 전에 ‘이
대로 눈뜨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다. 아침에 눈이 떠지는데
일어나고 싶지도 않고 일어난들
할 일도 없었다.” 주디 한 기자

→ 2면에서 계속

독립운동가 5인의
삶과 정신 대서사시로
무대에 오른다



사고

김경운 목사 초청
삼대동일 신앙 세미나

다음 세대에게 앞선 세대의 영
적 유산을 어떻게 계승할 것인가
가 이민교회의 핵심 과제로 부상
하고 있는 이때, 미주 기독일보
와 미주 삼대 동일 신앙 연구소
에서는 신앙의 세대 계승을 위한
세미나를 준비했습니다.

세미나는 7월 28일(월) 오전
10시부터 4시까지 LA에 소재한
LA소망선교교회(김영호 목사)에
서 열리며, 김경운 총장(광신대학
교)이 강사로 섬기게 됩니다.

‘삼대 동일 신앙 묵회 세미나’
를 주제로 한 이번 세미나는, “교
회와 가정 연계를 통한 사대 동
일 신앙 세우기”라는 부제 아래
진행됩니다.

삼대 동일 신앙 묵회 세미나

참가 신청: QR코드

문의: 기독일보 (213-434-1170)

일시: 7월 28일(월) 오전 10시

주소: 3511 W.

Olympic Blvd.

#3FL, LA CA

90019



인앤아웃 본사, 캘리포니아 지킨다

캘리포니아에 본사를 둔 버거
체인점 인앤아웃 버거 사장인 린시
스나이더는 미 남동부 지역으로의
확장의 일환으로 테네시에 새로운
사무실을 열지만 본사를 그곳으로

이전하지 않는다고 발표했다.

그는 21일 소셜 미디어에 올린 성
명을 통해 “인앤아웃 버거 본사는
이전하지 않는다. 볼드윈 파크 사무
실 외에도 테네시주 프랭클린에 사

무실을 개설하여 성장을 지원할 계
획이지만 캘리포니아를 떠나거나,
저희의 뿌리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저희의 모든 지점은 앞으로도 계속
존재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지난주

그는 엘리 베스 스타키의 “Relat-
able” 팟캐스트에 출연해 캘리포니
아 주정부가 기업을 과도하게 규제
하는 것에 대해 고충을 호소했다.

주디 한 기자 → 2면에서 계속

당일송금 당일지급
송금·환전
한국 돈이나 달러가 필요하신 분?
입금 즉시 캐쉬 OUT / 신속 정확
소액~고액 환영 / 매월하시는 분 우대
타운내 최고로 저렴한 택배(한국택배)
미국 ↔ 한국 7Day 24hours (213)400-6363

어려운 시기에 힘드신 분들의 힘있는 변호사
신실한 벗이 되길 희망합니다!
■ 상법/부동산법 ■뱅크리스 YouTube "마동환 법률상식"
마변호사그룹에서 여러 분야의 법적문제에 관한 스트래스에서 자유로워지는 평안을 체험하십시오.
마동환 변호사그룹 대면·전화상담 예약 213.820.3704
MARH & ASSOCIATES Attorneys at Law

태양광, 솔라!!
☑️ 상업용 건물 Tax Benefit 60% ~ 80%
☑️ 연방ITC: 30% 이상
☑️ 솔라 설비의 감가상각비 총 60%를 다음해에 공제 가능(2024년 설치 시)
☑️ 원금 회수기간: 3년~6년
☑️ 전기료 절감: 최대 90%
2025년 대박
BTS SOLAR DESIGN 213.500.8000

B T S SOLAR DESIGN

태양광, 솔라!!

주택용 30% Tax Credit / 상업용 최대 80% Tax Benefit

2025년 대박

SCAN ME

무료 설치 서비스

전기차에 필수인 240V 아울렛을 무료 설치해 드립니다.

백업용 배터리

정전에도 끄떡없고 절약을 위한 옵션, 고객님들께 **원가에** 제공합니다. SCE 지역 필수 / LADWP 선택 옵션

초기부담 없는 \$0 다운부터

풀 페이먼트 / 할부 결제 / PPA

상업용 건물, Tax Benefit 60% ~ 80%

텍스 크레딧: 최대 30%

감가상각: 최대 80% 적용 (2025년 설치 시)

- 원금 회수기간: 3년 ~ 6년
- 전기료 절감: 최대 90%

www.btssolar design.com

LA: 2621 W. Olympic Blvd. #206 Los Angeles, CA 90006
213.500.8000
OC: 6904 Oran Cir. Buena Park, CA 90621
714.702.0151

주택, 커머셜, 교회 등 솔라 설치 가능

Why BTS Solar?

고객님들께 드리는 서비스 약속

- 최고의 서비스**
잘 훈련된 프로페셔널 팀이 최고의 제품을 사용하여 설치해 드립니다.
- 최고의 워런티**
고객님의 시스템은 언제나 안전합니다. 업계 최장 25년 워런티를 보장합니다.
- 최고의 제안가격**
타사대비 25-40% 저렴한 가격으로 제안 드립니다.

TALK BTSSolar

빠른 상담을 위해 아래와 같이 진행해주십시오.

1. 최신 전기빌을 준비해 주세요.
2. 전기빌 1~4 페이지를 사진 찍으신 후 문자 또는 카톡으로 보내주세요.
3. 확인 후 고객님께 별도 안내 드립니다.

은혜한인교회 뮤지컬 ‘신 천로역정’ 배우·스텝 모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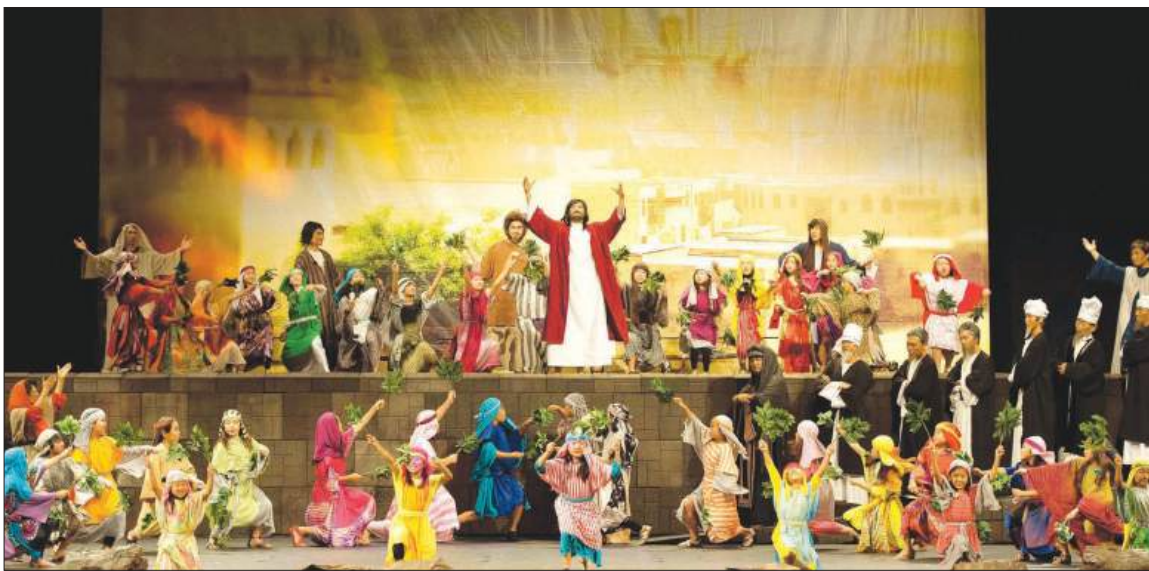
내년 4/17-19 부활절 특별 공연
김현철 감독 현대극으로 재해석

은혜 한인교회(한기홍 목사)가 내년 4월 17일(금)부터 19일(주일)까지 3일간 부활절 특별 공연으로 뮤지컬 신 천로역정을 무대에 올린다.

은혜한인교회 문화사역국(국장 장순범 장로, 담당 교역자 김현철 목사) 주관으로 올려지는 이번 작품은 존 번연의 천로역정 원작을 LA를 배경으로 현대극으로 재해석했다.

또한, 내년 6월 15~26일까지 한국의 목포 사랑의교회, 부산 세계로교회에서도 상연할 예정이며 2028년에는 영국, 프랑스 등 유럽 진출도 내다보고 있다.

감독/연출을 맡은 김현철 목사(기획/극본/감독)는 2012년부터 2017년까지 6년간 뮤지컬 이터널 라이프



은혜한인교회는 내년 부활절에 공연될 뮤지컬 신 천로역정 공연에 함께할 배우 및 스텝을 모집한다. ©은혜한인교회

시리즈와 2022년 6월 뮤지컬 킹 데이빗을 무대에 올려 7년간 약 4만명이 관람했다.

이번 뮤지컬의 특별한 점은, 중간에 5~7분 분량의 단편 영화 ‘허상의 도시’가 삽입된다는 점이다. 허무한

세상 속 인간 내면을 파고하는 영적 타락을 강렬하게 그린 이 영화는 뮤지컬 제작진이 직접 제작하고 뮤지

컬 배우들이 출연한다. 뮤지컬 선교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이번 공연을 준비하고 있는 주최측은, 영상, 무대 디자인, 의상, 소품, 그래픽 등 공연 전반에 걸쳐 최고 수준의 공연을 위해 준비하고 있다.

배우 및 스텝 모집

2026년 초연될 뮤지컬 신 천로역정(Pilgrim's Progress: The New Chapter)에 함께할 배우와 스텝을 모집한다. 모집 대상은 배우 부문: 남자 주연급 1명, 조연 2명, 여자 주연급 1명이며, 나이는 20세 ~ 45세 미만, CCM 가수, 또는 성악 전공자로 뮤지컬을 배우며 봉사하고자 하는 이다. 스텝 부문은 조연출 1명(경험자/ 무경험자 환영)이다.

주디 한 기자

문의: 총무/미셸 리 714-323-0802, 전승용 858-945-7269

최순환 목사 “연수보다 중요한 것은 바른 방향”

7월 13일 뉴 처치 창립 8주년 맞아

새교회(New Church, 최순환 목사)가 지난 7월 13일(주일) 오후 1시, 창립 8주년을 맞아 기념 감사에 배를 드렸다.

조이스 장로(자카르타 국제대학교)가 개회 기도하고 워싱턴 중앙장로교회 소속의 아가페 LA 단기 선교팀이 특별 무대를 꾸몄다.

한어 청소년들로 구성된 이 선교팀은 LA 복음화를 위해 파송되어 거리 전도, VBS, 교회 탐방 등의 사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날 새교회의 예배에 함께 참여해 선교적 열정을 나눴다.

이어서 방상용 목사(세리토스 선교교회)가 “성령 열매 교회”(갈 5:22-23)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방 목사는 “교회의 크고 작음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느냐는 것이다. 그 사랑에 감격하며, 성령의 열매를 맺는 교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설교했다.

최순환 목사는 “8년을 걸어오며 느낀 것은 연수보다 사역의 방향이 더 중요하다는 점이다. 지금 우리가



새교회(New Church, 최순환 목사)는 지난 7월 13일(주일) 오후 1시, 창립 8주년을 맞아 기념 감사예배를 드림©New Church

하나님을 위해 어떠한 모습으로 헌신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며 “이제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 복음 전하는 교회로 나아가겠다”고 전했다.

예배는 추창호 목사(헬리웃 거리전도팀 대표)의 축도로 은혜 가운데 마무리되었다.

새교회(New Church)는 2017년 7월, LA 다운타운에서 청년 중심의 목회와 불신자 전도를 목적으로 창립되었다. 전통적인 틀에 얽매이지 않는 유연하고 창의적인 사역 방식

을 통해 많은 청년들과 비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힘써왔다.

최순환 목사는 총신대학교와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를 졸업하고, 미국 풀러신학교에서 목회학 박사(D.Min.) 학위를, 대한신학대학원 대학교에서 명예 철학박사(Hon. Ph.D.) 학위를 취득했다.

문의는 310-905-2228로 하면 되며 예배 장소는 21916 Moneta Ave, Carson, CA 90745에 있다. 김민선 기자

→ 1면 기사 <인앤아웃...>에 이어서 “캘리포니아에는 좋은 점이 많지만, 여기서 가정을 꾸리는 건 쉽지 않다. 여기서 사업을 하는 건 쉽지 않다.”고 말했다.

그의 조부모는 1948년 캘리포니아주 볼드윈 파크에서 인기 버거 체인점을 설립했다. 일부 초기 보도에

서는, 스나이더가 인앤아웃 본사를 테네시주 프랭클린에 지역 본사를 이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앤아웃의 본사 이전 계획이 보도되자 논란에 휩싸였다. 비판가들은 스나이더가 그의 가족 사업이 성장하고 번영했던 캘리포니아를 떠나 더 낮은 세율을 찾아 떠났다

고 비난했다. 테네시는 개인 소득세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으며, 최고 법인세율 6.5%는 캘리포니아의 최고 세율 8.84%보다 훨씬 낮다.

21일 스나이더는 2월에 처음 발표했던 어바인 사무실을 폐쇄하고 서부 해안 본사를 볼드윈 파크로 통합한다는 계획을 재확인했다.

→ 1면 기사 <하나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일...>에 이어서

나는 꿈을 이룰 힘이 없었다

“더 이상 막노동할 데도 없고, 시카고 집 앞에 넓은 공원이 있었는데 오전에 거기 가서 앉아 있다가, 비행기가 날아가면, ‘거기 올라타면 나도 한국 가는데’라고 생각했다. 남들은 아메리칸 드림을 이야기하는데... 나는, 그 꿈을 이룰 힘이 없었다. 미시간 호수 앞에 서면 호수가 저에게 ‘들어오라고’ 부른다. 제가 서 있는 이 땅은 제게 수치, 조롱, 박애는 없고 미시간 호수는 평화, 안식이었다. 목사 아들인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본 적이 없었다. 절망 속에서 하나님이 저를 만나주셨다. 말로 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다. 그렇게 주님을 만났는데도 달라지는 게 없었다. 통장 잔고는 20달러 그대로였다. 취업할 가능성은 없고, 이것 먹고 죽어야 하나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하나가 달라졌다. 제 시선이 달라졌다. 저를 볼 때는 제가 제 자신을 사랑할 수 없었고 미국을 보면, 제가 감당할 수 없는 골라 맛이었다. 그런데 눈을 들어 주를 보는데, 통장에 20달러가 전부더라도, 하나님께서 일으킬 놀라운 일에 대해 기다리는 꿈을 주셨다.”

그로부터 10년 후 그에게 찾아온 하나님께 준비하는 계획들에 대해 간증했다. 1992년 12월 옥한흠 목사가 사랑의교회 청소년 사역자로 그를 부르셨고, 그는 “10년을 꿈 같이 보냈다”라고 회고했다. 그리고 분당우리교회 개척, 1

만 성도 파송운동, 29개 교회 분립이라는 만기 힘든 여정이 모두 그 시선, 하나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일들에 대한 기대감에서 시작되었음을 나눴다.

“저 보면, ‘별거 아니네’ 이런 생각 안 드십니까?”

이 목사는 “저를 보면, ‘별거 아니네’ 이런 생각 안 드십니까? 머리 좋은 사람도 아니고, 제 영어실력을 알고 싶으면, 식당에 데려가 시면 된다. 식당에서 영어로 주문도 못해서 한국어로 갔다. 아무것도 갖추지 않은데 제게 있는 것은 한 가지, ‘시선’이다. 은혜는 시선이 바뀌는 것이다. 내 인생은 넘을 수 없는 벽 앞에서 서 있는 것 같았는데, 눈을 들어 주를 보면, 주께서 행하실 일을 기대하게 된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일을 향한 기대감, 성결 유지의 비결”

설교 후반부에서 삼손의 또 다른 문제였던 ‘제동장치의 부재’를 지적했다. 사사기 14장에 삼손이 처음 등장하는 장면에서, 그가 이방 여인을 보고 아무 거리낌 없이 자기 아내로 삼게 해달라고 부모님께 요청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음을 예로 들었다.

이어서, “여호수아 3장 5절을 언급하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을 기대할 때 ‘성결’을 지킬 수 있다며 “예배의 자리 에 올 때마다 하나님께 대한 기대감을 잃지 말라”는 메시지로 설교를 마무리했다.



그레이스미션대학교
GRACE MISSION UNIVERSITY

재단이사장 한기홍 박사 총장 최규남 박사

2025 가을학기 신.편입생 모집

2025년 7월 31일 까지

| 입학 절차 |

1. 원서접수

웹사이트에서 Apply 메뉴 클릭

2. 서류 제출

온라인으로 필요서류 제출

3. 인터뷰

온라인 인터뷰 진행



| 입학 문의 |

☎ 입학처: (714) 525-0088 (ext 101)
✉ 이메일: admissions@gm.edu
🌐 웹사이트: www.gm.edu

GMU 웹사이트 [Apply 바로가기]
www.gm.edu

너의길을 여호와에게 맡기라

네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네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네 공의를 정요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시편 37:5-6

학사 Bachelor of Arts

- 신학 BATH
- 기독교상담학 BACC

박사 Doctoral

- 선교학 DMiss
- 교차문화학철학 PhD in ICS
- 교육학철학 PhD in ES
- 상담심리학철학 PhD in CP

| 학생 혜택 |

유학생 1-20 발행

선교사 및 목회자 장학금

연방정부 학비지원 (FSA)

통신(Online)수업을 통한 학위 취득 가능

eBook Library Service 제공

석사 Master

- 목회학 MDiv
- 기독교 교육학 MACE
- 선교학 MAICS
- 기독교 상담학 MACC

International Track

- English Track BATH, MDiv, MACE PhD in ICS, DMiss
- Chinese Track BATH, MDiv PhD in ICS, DMiss
- Spanish Track BATH, MDiv
- Indonesian Track BATH, MDiv

교육 인가 기관





고태형 목사 “지난 50년 굴곡을 넘은 힘,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

선한목자교회 50주년 기념 예식
7월 20일 주일 오후 4시

선한목자교회(고태형 목사)가 창립 50주년을 맞아 20일 주일 오후 4시, 기념예식을 가졌다.

고태형牧사는 이날 50주년 감사 영상에서 교회에 대해 “이 공동체는 누가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라며, “모든 성도가 각자의 위치에서 함께 세워가는 공동체인 것”이라고 했다. 이어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그 이름에 걸맞는 삶과 헌신, 그리고 주님께 드리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힘쓰고 나아가길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고태형 목사는 미국 장로교(PCUSA)를 탈퇴하게 된 배경에 대해 “비성경적인 결정 앞에 침묵할 수 없었다”고 회고했다.

고 목사는 “2011년에 PCUSA가 동성애자를 목사, 장로, 안수집사로 세우는 비성경적인 결정을 내렸다. 당시 이 결정은 많은 교회들에게 큰 충격이었고, 선한목자교회도 예외는 아니었다”며 “한국교회를 대표해 PCUSA 내 보수 교단 관계자들과 함께 회의에 참여했다. 보수적



선한목자교회(고태형 목사)가 창립 50주년을 맞아 20일 주일 오후 4시, 기념예식을 가졌다.©선한목자교회

인 교회들, 그중에서도 큰 교회들의 대표 일꾼 분과 함께 회의에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그는 회의를 통해 PCUSA 지도부의 결정이 단순한 포용의 차원을 넘어 성경의 가르침을 왜곡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했다. 교회는 교단에 남는 것이 신앙적 정체성과 양심에 어긋난다는 결론을 내리고 교단 탈퇴 수순을 밟기 시작했다.

그는 “이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닌, 선한목자교회가 그동안 지켜

온 성경 중심 신앙의 본질을 지키기 위한 결단이었다”며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하는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우리가 헌신과 눈물로 지은 교회 건물을 포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결단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가능한 선택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우리가 가진 것을 내놓을 수 있다는 것이 너무도 감격스럽고, 생애에서 정말 귀하고 잊을 수 없는 경험이었다”고 덧붙였다.

고 목사는 지난 세월을 돌아보며, “우리 교회를 50년 동안 인도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셨다. 아무도 예상치 못했던 교단 변경이라는 큰 전환점을 넘어올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였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게 우리 교회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에 감사를 드린다”며 “우리 모두가 입을 모아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이 길을 여셨다’는 사실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결단을 불쌍히 여기시고 치노힐스라는 아름다운 지역에서 새로

운 도약의 길을 허락하셨다”고 감사를 표했다.

제6대 담임목사였던 림형석 목사는 축사에서 “선한목자교회를 섬겼던 13년간의 사역은 제 생애 가장 행복한 목회 기간이었다. 여러분과 나누었던 사랑의 교제는 제 마음에 항상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아 있다”며, “선한목자교회와 함께 했던 시간은 진심으로 사랑과 은혜가 오갔던 공동체적 경험이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수고하신 고태형 목사님과 당회 장로님들, 제직 여러분들과 성도 여러분들께 축하의 인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고태형 목사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사무엘상 7:2-13) 제목으로 설교를 했으며 한국 고전무용, 치노힐스 시장의 축하 인사, 치노밸리 교육구 장학금 전달식이 진행됐다. 모든 순서는 림형석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선한목자교회는 창립 50주년을 기념하며, 다음세대를 준비하는 교회,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 세계선교와 전도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교회로 세워지길 소망하고 있다.

토마스 맹 기자

LAKMA 음악은 민족의 정서와 정체성을 전달하는 수단

LAKMA 주최 광복 80주년 기념 음악회 ‘Spirit of Korea’

오는 8월 2일(토) 오후 7시 월트 디즈니 콘서트 홀에서 8.15 광복 80주년을 기념하여 다민족화 함께 자유·연합·평화를 노래하는 음악회가 개최된다.

지난 7월 18일(금) 오전 11시 30분 라크마(LAKMA, Los Angeles Korean-American Musicians' Association)는 기자회견을 열고 광복 80주년 기념 음악회 〈한국의 열〉(Spirit of Korea)을 기획한 취지와 프로그램 구성 등에 대해 나누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최승호 단장, 윤임상 음악감독, 이사 오위영 목사, 백낙금 작곡가가 자리한 가운데 이미미 총무가 이들을 소개했다.

먼저, 최승호 단장이, “한국인으로서는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며 “기억하는 데 가장 좋은 방법은 음악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1부에서는 김구, 안중근, 유관순, 안창호, 윤동주 5인의 삶을 음악으로 추모하고, 2부에서는 우리 나라를 위해 희생한 선교사들의 헌신을 기리며, 배재학당을 설립한 아펜젤러 선교사의 후손들을 초청해 감사의 시간을 갖는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윤임상 교수가 이번 음악회 각 프로그램의 구성에 대해 설명했다.

‘자유’를 주제로 한 첫 무대는 다민족으로 구성된 74명 합창단(한인 32명, 타인종 42명, 총 8 민족)과 오케스트라(67명) 그리고 성악가 최은정(소프라노), 신하영(메조), 오정목(테너), 백승현(바리톤), 전민권(소리꾼)이 광복 5인의 삶과 희생을 창작곡인 대서사시 ‘Let My People Go’에 담아 전달한다. 작곡을 맡은 백낙금 작곡가는 서양 음악과 한국 전통음악의 조화를 통해 그들의 정신과 삶을 표현한다. 두번째 무대에서는 번스타인



지난 7월 18일(금) 오전 11시 30분 라크마(LAKMA)는 기자회견을 열고 광복 80주년 기념 음악회에 대해 나누었다.©기독일보

의 “Make Our Garden Grow”와 “Arirang & Amazing Grace”(김경희 편곡)가 연주되며, 패트릭 블랙웰(Patrick Blackwell, 바리톤), 김시연(소프라노), 7인 다민족 앙상블이 무대를 이끈다.

세번째 무대(브릿지)는 일제강점기에 작곡된 한국 가곡 ‘진달래꽃’, ‘산유화’, ‘가고파’를 통해 그 시대의 고통과 애환을 전달한다. 마지막 순서로, LAKMA 코랄

(75명)과 어린이 합창단(40명), 커뮤니티 합창단(100명) 등 총 300명 이상이 코리안 판타지(안익태 작곡, Korean Fantasy)를 합창하고, 전 관객이 애국가를 함께 부르며 광복 80주년의 의미를 되새길 예정이다.

오위영 목사는 이번 음악회가 지닌 의미에 대해, 그 민족을 위해 목숨을 마다하지 않았던 선조들의 정신을 기억하고, 계승하기 위한 것이

라고 설명했다.

“그분들이 목숨 걸고 지키려고 했던 것이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니, 우리나라, 우리 민족이었다. 그분들의 정신을 음악으로 조금이나마 표현하고 싶었다.”

“이 음악회는, 음악이라는 틀을 통해서 다음 세대에게 코리안 아메리칸의 정체성을 전달해 준다는 의미가 있다. 제 소망은 다음 세대가 우리보다 우리 민족을 더 사랑하고 우리 민족의 정신을 계승하는 것이다.”

티켓문의는 www.lakma.org, 323-577-8691, lakmainfo@gmail.com로 하면 된다.

기악 및 성악 연주자들이 모인 비영리 음악 단체인 LAKMA는 사회적 약자를 돕고, 음악에 관심 있는 학생들을 지원하고 있다. 2012년부터 2021, 2020년을 제외하고 매년 여름과 겨울에 다민족과 함께하는 콘서트를 개최하여 연합과 평화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주디 한 기자

HYUNDAI
GETAWAY
SALES EVENT

NEW 2025 HYUNDAI Palisade
Calligraphy

NEW 2025 HYUNDAI Elantra Hybrid
Blue

PH
Puente Hills Hyundai
SUPER STORE

여름맞이 스페셜
0%
APR Financing
48개월까지 할부 가능
스페셜 리스 프로그램 가능
Special Lease Program available

NEW 2025 HYUNDAI Kona SE

NEW 2025 HYUNDAI Ioniq 6
Limited RWD

NEW 2025 HYUNDAI Ioniq 5
Limited RWD

PAUL KIM
714.331.3855

MIKE LEE
714.914.8414

JUSTIN KIL
213.999.3935

CHARLEY JEONG
213.276.8959

JAMES PARK
213.839.3332

HARLEY KIM
949.433.1378

Frank Kim
323.823.0682

Sean Kim
213.605.2886

Jae Lee
714.319.4611

HYUNDAI
1-888-644-7114

LA한인타운과 오렌지카운티에서 20분거리
www.phhyundai.com
17621 Gale Ave. City of Industry, CA 91748

HYUNDAI Assurance
America's Best Warranty
10-Year/100,000-Mile
Powertrain Limited Warranty

All prices exclude government fees and taxes, any finance charges, dealer preparation charges, and any emissions testing charges. Please contact Dealer for complete incentives and program details. Subject to change without prior notice. All prices, specifications and availability are subject to change without notice. Contact Dealer for current information. Your actual mileage may vary depending on how you drive and maintain your vehicle. Actual mileage will vary with options, driving conditions, driving habit and overall vehicle condition. All vehicles subject to prior sale. Expires 24hours after publication. Plus Dealer installed options

어서와~

코칭은 처음이지?

코칭의 세계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첫번째 강의 어서와~ 코칭은 처음이지?

2025년 8월 5일 화요일 오후 5시 (L.A 시간)

8월 6일 수요일 오전 9시 (한국 시간)

두번째 강의 코칭 생생 체험하기!

2025년 8월 7일 목요일 오후 5시 (L.A 시간)

8월 8일 금요일 오전 9시 (한국 시간)

관의, 정호연 교수

CPU 전문코칭학 교수

국립연세대학교 전문강사

IOF, NCA 인증 프로그램

아시아코칭센터 센터장

ZOOM ID

829 947 6668

“어서와! 코칭은 처음이지?”

캘리포니아 프레스티지 대학교 (CPU, 전 미주장신)는 오는 8월 5일 (화)과 7일(목), 오후 5시(미 서부 시간)에 무료 온라인 코칭 세미나 “어서와! 코칭은 처음이지?”를 연다. 코칭전문석사(MAPC) 과정을 알리기 위해 준비된 이번 행사는 미주 한인들에게 코칭의 이론과 실재를 체험할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

세미나 1 회차(5일)는 코칭 소개와 이론을 다루며, 2 회차(7일)는 “코칭 생생 체험하기”라는 주제로, 코칭의 실재를 소개하며 라이브 데모·코칭 스킬 워크숍이 진행된다. 두 세션 모두 CPU 코칭학과 정호연 교수가 메인 강의를 맡는다. 정교수는 한국코치협회와 국제코치연맹이 인증한 프로 코치로서, 아시아 코칭센터의 시니어 코치로 활동하고 있다.

각 회차의 세미나에서 CPU 졸업 후 전문 코치로 사역 중인 김은선·박금남·박은희·윤혜은·최성연 코치가 패널로 등장해 프로그램을 풍성하게 이끌게 된다. 이번 세미나는 코치라는 새로운 커리어와 사역도구를 발견하는 시간이 될 것이며, 참가자들은 “상당과 어떻게 다를까”, “삶과 사역 현장, 커리어에 코칭을 적용하는 방법”등 평소 궁금했던 질문에 대한 질의응답시간도 마련된다.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코칭 특별 세미나 “어서와! 코칭은 처음이지?”는 줌으로 진행되며, 코칭이란 학문을 처음 접하는 누구나 부담없이 참여할 수 있다. CPU 기사 제공. 참여방법: ZOOM ID, 829 947 6668 (https://us02web.zoom.us/j/pts1977)

에브리데이교회 헤세드 장학금 수여식

총 5명 신학생 4,000 달러 장학금 수여, 헤세드 트립

“헌신된 한 사람이 한 교회와 한 민족을 살릴 수 있다.”라는 비전으로 진행되었던 헤세드 장학금 수여식이 지난 7월 13일(주일) 에브리데이교회 본당에서 열렸다.

에브리데이교회 담임 손창민 목사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있는 이 시대에, 재정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학업의 현장에서 사역을 준비하고 있는 귀한 신학생들이 위로와 용기를 받길 소망한다. 다섯분의 장학생분들을 통해 미국과 열방에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길 소망한다.”라고 인사말을 전했다.

에브리데이교회 성도들 역시 “거저 받은 은혜와 사랑이 흘러가



7월 13일(주일) 밸리 지역에 있는 대형교회인 에브리데이교회가 신학생 5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수여식을 마친 뒤 교회 교역자들과 장학생들이 함께 기념 사진을 찍었다. 앞줄 왼쪽부터 장학생 이성민, 김영욱 목사, 손창민 담임목사, 장학생 유영권 전도사, 백인성 목사, 김한수 전도사. ©에브리데이교회

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시작된 이번 장학금은 △김영욱(사우스웨스턴 침례신학교) △김한수(사우스웨스턴 침례신학교) △백인성(에모리대 캔들러 신학대학원) △

이성민(트리니티 복음주의 신학대학원) △이성민(고든 콘웰 신학대학원) 총 5명의 신학생들에게 수여됐다.

장학생으로 선정된 신학생들은 수여식에 앞서 4박 5일동안 진행된 헤세드 트립에도 참여했다. 이들은 이 여정 동안 서부 신학교 및 건강한 미국 교회들, 캘리포니아의 랜드마크를 탐방하며 앞으로의 그들의 사역을 위한 목회적/사회적 식견을 넓혔다.

장학생으로 선정된 신학생들은 “헤세드 트립을 통해 힘과 심을 얻었다. 특별히 교역자분들과의 대화를 통해 용기를 얻었고, 미국 교회를 방문하며 앞으로 교육과 선교를 어떻게 접목할지 청사진을 그릴 수 있었다.”고 소감을 나눴다.

김민선 기자

남가주 중보기도팀 연합 기도대회 성료

지난 7월 16일 오전 10시, 감사한인교회에서 성도와 선교사, 목회자 150여 명이 모인 가운데 남가주 중보기도팀 연합 기도대회가 진행됐다.

감사한인교회 중보기도 사역자인 전영숙 전도사의 사회로 진행된 1부 예배는 정찬균 목사(OC 목사회 부회장)의 기도, OC 목사회 특송에 이어서 구봉주 목사(감사한인교회)가 시편 137편을 본문으로 ‘시온을 향하여 울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의 경험이 있는 시온을 향하여 울 수 있는 중보기도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란다’고 설교했다.

최학량 목사(미주한인교목회 회장)의 축도로 1부 예배를 마치고 2부 기도회가 이어졌다. 중보기도팀 연합기도회 사무총장인 강태광 목사의 사회로 진행된 2부 기도회에서는 강순영 목사의 비전 제시에 이어서 4개 그룹이 4개의 주제를 두고 기도하였다.

제1기도 ‘미국을 위한 기도’는



현민정 목사(은혜한인교회)와 은혜한인교회 중보기도자들이 이끌었다. 현민정 목사는 지금 미국의 상황에 기도가 절실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도전했다.

제2기도 순서로, 전영숙 전도사(감사한인교회)와 감사한인교회 중보 기도팀은 조국 대한민국의 현실을 하나님께서 주장해 달라고 기도했다.

제3기도 순서에서는 김은목 목사(남가주 교협 부회장, 평화교회)와 청교도 기도동역자 그룹이 세

계 평화를 위해, 선교지와 선교사들의 사역을 위해 기도했다.

제4기도는 기도운동을 위한 기도였다. 심상은 목사(OC 교협 총무 이사, 갈보리선교교회)와 OC목사회, 교협, 갈보리 선교교회 중보기도팀이 함께 등단하여 11월 2일로 예정된 다민족 연합 기도대회, 21인 초청 새벽 기도회, 남가주 중보 기도팀 연합기도운동을 위해 기도했다.

사무총장 강태광 목사는 11월 2일로 예정된 다민족연합기도대회

와 10월 9일로 예정된 중보기도팀 연합기도대회에서 다시 모여 기도하자고 광고했으며 10월 18일에 예정된 다민족 지도자 초청 남가주 성지순례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요청했다. 마지막 순서, 류종길 목사의 폐회 및 식사 기도회로 기도는 마쳤다.

김민선 기자
중보기도팀 주요 일정
10/9 중보기도팀 연합기도대회
10/18 다민족 지도자 초청 남가주 성지 순례
11/2 다민족연합기도대회

아버지 밥상교회(홀리스미션)

홀리스 영혼들을 예수님의 품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많은 협력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무디 고 목사 T.(213)364-7289
2551 W. Olympic Blvd., LA, CA 90006
9030 Duncan Rd., Victorville CA 92392

기독교일보

Pay to the Order of Christianity Daily

편집교문 : 박기호, 김종연, 고승희, 민종기, 정우성

발행인 : 이인규 고문변호사 : 정찬용

지사 : 로스앤젤레스, 뉴욕, 애틀랜타, 시애틀, 텍사스

대표전화 : T.(213) 739 - 0403 / E-mail : chdailya@gmail.com

주소 : 3055 Wilshire Blvd, #480, Los Angeles, CA 90010

부제: 교회와 가정 연계를 통한 삼대 동일 신앙 세우기

삼대 동일 신앙 목회 세미나 (신6:2) 2025

강사: 김경윤 총장

(현)광신대학교 총장
(전)아신대학교 법인이사
(전)총신대학교(합동)운영이사
(전)교육국장(개혁)
(전)필리핀 선교사
(전)GMS 파송이사
(전)목포제일노회 노회장

강의시간 안내

오전 10:00 ~ 12:00

삼대가 함께한 세대 통합 예배

오후 12:00 ~ 1:00

점심시간

오후 1:00 ~ 2:45

삼대의 기본 튼튼 신앙 세우기, 스토리가 있는 세대 통합 경건 훈련

오후 2:45 ~ 3:00

Break time

오후 3:00 ~ 4:00

3년 커리 만들기

■ 날짜: 2025년 7월 28일(월)

■ 장소: LA소망선교교회(김영호 담임목사)
3511 W Olympic Blvd #3FL, Los Angeles, CA 90019

■ 등록: QR코드 스캔 후 등록해 주세요

주최: 미주 기독교일보, 미주 3대 동일 신앙 연구소(Three Generations Same Faith Research Center in USA)

문의: 김영호 목사(213-590-9885), 김갑선 목사(213- 407-4524), 기독교일보(213-434-1170)

센터메디컬그룹 회원들에게 무료로 제공되는 추억의 무대

“어제의 이야기와 오늘의 웃음이 만납니다.”

무성영화 변사 영화제

센터메디컬그룹 회원 문의연락처
월 - 금 / 9AM - 5PM
888.847.3098

센터메디컬그룹 회원분들만
관람이 가능한 공연입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시대 마지막 변사
최영준



천재 개그맨
엄영수

〈홍도야 울지마라〉 & 〈검사와 여선생〉 / 〈엄영수 개그 쇼〉

2025년 8월 5일 & 6일

CGV BUENA PARK at THE SOURCE OC

6988 Beach Blvd, Suite B301, Buena Park, CA 90621

3회 공연 중
1회만 선택 가능

8월 5일 (화) 오후 7시
1부: 홍도야 울지마라
2부: 엄영수 개그 쇼

8월 6일 (수) 오후 2시
1부: 검사와 여선생
2부: 엄영수 개그 쇼

8월 6일 (수) 오후 7시
1부: 홍도야 울지마라
2부: 엄영수 개그 쇼

주관

SINCE 1990
문화기획 에이콤
ART COMMUNICATION

센터메디컬그룹 회원분이 직접 신청하셔야 합니다.
회원 1인당 1장만 수령 가능합니다 (한 공연 시간)



왜 ChatGPT는 방언을 말하지 않는가?

방언의 성경적 정의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는 기독교 변증가이자 작가인 로빈 슈마허의 기고글인 ‘ChatGPT가 방언으로 말하지 않는 이유’(Why Chat-GPT doesn’t speak in tongues)를 21일(현지시간) 게재했다.

기독교 변증가로 활동하고 있는 슈마허는 작가로도 활동하면서 많은 책을 냈고 미국 내의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하고 있다. 다음은 기고글 전문.

오래전, 필자가 알고 지내던 한 목회자의 아들이 호기심에 방언을 말하는 교회를 방문한 일이 있었다. 그 교회에서는 회중 가운데 한 사람이 일어나 방언을 하고, 곧이어 다른 사람이 일어나 그 내용을 해석하는 방식이었다(고린도전서 14:27을 따른다고 주장하며 말이다). 목회자의 아들은 장난삼아 일어나 라틴어로 주기도문을 외운 뒤 다시 자리에 앉았다. 그러자 한 교인이 일어나 전혀 엉뚱한 내용을 “통역”하며 말하기 시작했다. 라틴어로 된 주기도문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었다.

최근 ‘Christian Post’의 기사 ‘ChatGPT는 방언을 해석할 수 있을까?’를 보면서 이 오래된 기억이 떠올랐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방언을 말하는 것이 교회에서 정상이나 아니냐”라는 논쟁은 여전히 민감한 이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강한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주제이다. 하지만 지금 어떤 입장에 있든, 우리는 이 문제를 짧고 체계적이며 성경적인 접근을 통해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다. 그렇게 하면 왜 ChatGPT가 방언을 말하지 않는지도 자연스럽게 이해될 것이다.

두 가지 중요한 구분

가톨릭 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는 철학자의 중요한 역할은 “구분 짓기”라고 말했다. 성경에서 방언을 올바르게 이해하려면 두 가지 핵심적인 구분을 해야 한다.

첫째는 성경의 서술(descriptive) 과 명령(prescriptive)의 차이이다. 성경에는 다양한 사건과 행동이 ‘서술’되어 있지만, 그것이 곧 우리에게 ‘명령’된 것은 아니다. 사도행전 2장이나 고린도전서의 몇몇 장면은 특정 시기의 역사적 사건을 묘사한 것이지, 모든 시대에 적용해야 한다는 명령은 아니다.

〈신약의 방언 가르침〉(New Testament Teaching on Tongues)의 저자 메릴 웅거 박사는 이렇게 말한다. “오순절에 나타난 초자연적 언어 현상은 전 세계 복음 전파 시대의 도래를 알리는 전조였고, 이는 성령이 임하셨다는 표적이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믿는 자들에게 이를 성취하고 그 놀라운 구원의 메시지를 모든 민족에게 선포할 수

있도록 하셨다.” 바울 역시 말한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한다”(고전 11:22). 오순절은 그런 유대인들에게 강력한 표적이었다.

둘째는 기적의 ‘사실(fact)’과 ‘은사(gift)’의 차이이다. 성경 전체에 기적의 사건들은 넘쳐나지만, 기적적 ‘은사’는 세 번의 짧은 시기에만 집중적으로 나타난다. 즉, 모세 시대, 엘리야·엘리사 시대, 예수와 사도들의 시대다.

이 세 시기에는 거짓 신과 교리를 반박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확증하며, 불신자에게 경고하는 도구로 기적적 은사가 주어졌다. 그리고 그 은사는 그 시대가 지나면 함께 사라졌다.

방언은 무엇이며, 왜 주어졌는가?

이제 성경이 말하는 방언의 정의를 살펴보자. 사도행전 2장에서 “다른 방언들로 말함”(glōssa, 2:4)과 그 말을 “자기네 언어로 들었다”(dialektos, 2:8)는 표현은 분명하게 방언이 실존하는 ‘언어’(dialect)였음을 나타낸다.

그렇다면 오늘날의 개념으로 보자면, 방언은 예를 들어 일본어나 러시아어처럼 배운 적 없는 실제 언어를 갑자기 말하게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반대하는 이들은 고린도전서 13:1에서 바울이 “천사의 말”을 언급하거나, 14:2에서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라고 말한 구절을 들어, 방언은 인간 언어가 아닌 신비한 언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전자의 경우, 바울은 아마도 과장법(hyperbole)을 사용했거나 가정(hypothetical)의 형식으로 말했을 가능성이 높다. 후자의 경우는 〈바이블 지식 주석〉의 데이비드 K. 로워리 박사가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이 구절의 문맥은 고린도 교회의 공적 모임 안에서 통역 없이 방언이 사용되는 상황이다. 아마도 그 자리에는 해당 언어를 아는 사람이 없었던 것이다. 따라서 그 방언은 ‘신비’였고, 하나님께서 그 모임에 해석을 주지 않으셨기에 이해되지 않은 것이다.”

결정적으로, 하나님은 방언의 목적을 분명히 밝히신다. 바울은 이렇게 기록한다: “율법에 기록되었으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들과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 아니요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며,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요 믿는 자들을 위한 것이라.” (고전 14:21-22)

이 말씀은 이사야 시대 유대인들이 분명한 히브리어로 하나님

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거부한 것처럼, 그들에 대한 심판으로 하나님이 아람어(앗수르 언어)로 심판하셨다는 맥락에서 인용된 것이다. 즉, 방언은 불신자에게 주는 경고의 표적이다.

결론: 방언은 경고였다

신약 성경에서 방언은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거부하고 그리스도를 배척한 직후 나타난다. 하나님은 유대인들에게 히브리어로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복음을 거절했다. 이제 하나님은 그들에게 다른 언어로 복음을 경고의 메시지처럼 들려주신 것이다. 다시 말해, 방언은 교회의 시대가 도래했음을 알리는 강력한 경고였다.

그렇기 때문에 방언은 오늘날 교회에서 ‘입장권’, ‘성령세례의 증거’, ‘더 깊은 영성의 표지’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성경을 정직하게 다시 살펴보고, 그 의미를 깊이 되새겨야 한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ChatGPT가 방언을 말하지 않는 이유이기도 하다. 해당 CP 기사가 마지막에 언급한 바와 같이, 방언을 분석한 인공지능은 다음과 같이 진단했다. “이것은 실제 언어에 대응되지 않기 때문에 문자적 번역이 아니라 창의적인 해석입니다.” 따라서 그 자체가 명확한 결론을 말해준다.”

최승연 기자

미국 정부, 마틴 루서 킹 주니어 암살 관련 23만 쪽 문서 공개

트럼프 대통령 행정명령에 따라 60년 만에 기밀 해제… 킹 목사 암살사건 둘러싼 의혹 해소 기대

미국 정부가 마틴 루서 킹 주니어 목사의 암살사건과 관련된 23만 쪽 분량의 문서를 공개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국가정보국(NIC)을 이끄는 털시 개버드 국장은 21일(현지시간), 이번 공개가 킹 목사 암살을 둘러싼 오랜 의문들에 답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개버드 국장은 소셜미디어 X(구 트위터)를 통해 이번 문서 공개가 미국 역사상 가장 방대한 정보 공개 중 하나라고 밝히며, “연방수사국(FBI)이 진행한 킹 목사 암살사건 수사의 세부 내역과 다양한 단



마틴 루서 킹 주니어 목사 ©기독일보DB

서, 수사 당시 FBI 내부 보고서, 암살 당일의 정황, 그리고 킹 목사를 암살한 제임스 얼 레이의 동료 증언까지 모두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공개된 문서 가운데에는, 제임스 얼 레이의 전수감 동료가 암살 전에 레이의 계획을 들었다는 진술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진술은 그동안 일부 음모론자들이 주장해온 계획적 암살설에 대한 새로운 단서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기밀 해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23일, 취임 3일 만에 서명한 행정명령에 따라

이뤄졌다. 해당 명령은 존 F. 케네디 대통령, 로버트 F. 케네디, 마틴 루서 킹 주니어 목사 등 미국 역사상 주요 암살사건에 대한 남은 기밀 문서를 전면 해제하도록 지시한 것이다.마틴 루서 킹 주니어 목사는 1960년대 미국 민권운동의 상징적 인물로, 비폭력 저항 운동과 인종차별 철폐를 위한 활동으로 노벨평화상을 수상했다. 그의 대표적인 연설 “I Have a Dream”은 미국 역사상 가장 감동적인 연설로 손꼽히며, 오늘날까지도 교과서에 수록될 만큼 널리 기억되고 있다.

홍은혜 기자



TALBOT
SCHOOL OF THEOLOGY
BIOLA UNIVERSITY

미국교수와 한국교수의 콜라보!

신학/목회학 석사 100% 온라인 수업

목회학 박사(캠퍼스 인텐시브)

MA in Christian Ministry & Leadership : 총 49학점
MDiv (목회학 석사과정) : 총 79학점

- 100% 온라인 수업
- 연간 3학기제 운영: 봄학기, 여름학기, 가을학기
- 학기별 16주 운영
- 학기당 3학점 두 과목 이수 가능 (연간 18학점 수강 가능함, 사역실습은 별도)
- 매주(총16주간) 미국인 담당교수의 동행상 강의 시청
- 한국인 교수의 실시간 온라인 수업
- 한국인 교수의 수업 내용(수업 주제 리뷰 + 발표 + 퀴즈풀이 + Q&A)



Ed Stetzer, Ph.D.
탈봇의 교수진은 보수적 복음주의적 신학 입장에서 신학도들과 사역자들을 양성해 왔습니다. 탈봇은 진실한 그리스도인을 하나님의 사역자로 양성하고, 교회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추구해야 하는지, 세상과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탈봇에서 신학교육을 받아야 하는 7가지 이유


1. ATS/WSCUC 정회원교로서 기독교 정신과 학문적 수준을 갖춘 최고 수준의 신학대학원입니다.
2. 성경의 무오성을 주장하는 보수적 복음주의 신학의 선두주자입니다.
3. 교수진은 보수적 복음주의 신학을 고수하며, 저명한 학위와 학술 작품을 발표한 학자들입니다.
4. 바이올라 대학교에 소속되어 세계적으로 인정받으며 재정적으로 안정된 신학대학원입니다.
5. 신학 교육의 혁신을 통해 영성형성을 토대로 하는 전인적 교육을 실시합니다.
6. 초교파 신학교로서 성경강해를 바탕으로 하나님 나라, 복음, 제자도에 집중합니다.
7. 신학지식 뿐 아니라 인격과 영성, 사역을 경험할 수 있는 진정한 배움의 장입니다.



모집 요강



(미국) 913 202 4084, (한국) 010 3024 5958








korean.masters@biola.edu



biola.edu/talbot-korean

교수소개 Faculty *아래 교수진은 석사 과정 강의자 중심이며 탈봇에는 그 외에 더 많은 교수진이 있음

 <div>Minsoo Sim, Ph.D./ Th.D Professor of Christian Education & Practical Theology, Director</div>	 <div>Eddie Byun, D.Min. Associate Professor of Christian Ministry</div>	 <div>Benjamin C. Shin, D.Min. Associate Professor of Christian Ministry and Leadership</div>	 <div>Clinton E. Arnold, Ph.D. Research Professor of New Testament</div>	 <div>John Coe, Ph.D. Professor of Spiritual Theology</div>	 <div>Sunny Song, Psy.D. Associate Professor of Christian Ministry and Leadership</div>
 <div>Daniel E. Kim, Ph.D. Associate Professor of Old Testament and Semitics</div>	 <div>Scott Rae, Ph.D. Professor of Philosophy and Christian Ethics</div>	 <div>Gary Manning, Ph.D Professor of New Testament Language and Literature</div>	 <div>Joanne Jung, Ph.D. Professor of Biblical and Theological Studies</div>	 <div>Ashish J. Naidu, Ph.D. Professor of Theology</div>	 <div>Mark Saucy, Ph.D. Professor, Department of Theology</div>
 <div>Doug Geringer Associate Professor of New Testament Language and Literature</div>	 <div>Kevin Van Lant, Ph.D. Associate Professor of Christian Ministry and Leadership</div>	 <div>Rob Price, Ph.D. Associate Professor of Theology</div>	 <div>Kenneth C. Way, Ph.D Professor of Old Testament and Semitics</div>	 <div>Ryan S. Peterson, Ph.D. Associate Professor of Systematic Theology</div>	 <div>R. Scott Smith, Ph.D. Professor of Christian Apologetics</div>
 <div>Kyle Strobel, Ph.D. Associate Professor of Spiritual Theology</div>	 <div>Uche Anizor, Ph.D. Professor of Theology</div>	 <div>Karin Stetina, Ph.D. Associate Professor of Biblical and Theological Studies</div>	 <div>Jeannine Hanger, Ph.D. Associate Professor of New Testament</div>	 <div>Dominick Hernández, Ph.D. Associate Professor of Old Testament and Semitics</div>	 <div>J P Moreland Distinguished Professor of Philosophy</div>

S 사랑하는 M 마음으로 G 가족처럼

당신을 먼저 생각합니다



서울메디칼그룹이 No.1 인 이유는
늘 따뜻한 마음으로 가족을 지켜온
오늘의 당신 덕분입니다

우리에게 No.1 이라고 하지만
우리에게 No.1 은 당신입니다

더 많은 사랑으로
더 건강한 시간으로
돌려드리겠습니다

김장환 · 이영훈 목사 ‘압수수색’ 파장… 어떤 의미?

교계 지도자급 인사에 대한 이례적 강제수사에 신앙 자유 위협 등 우려

채상병 순직 관련 특검
자택과 사무실 압수수색
나경원 "다음은 예배당 아닌
신앙 자체 겨냥될 것"
친미 인사 김장환 목사 수사에
한미관계 우려

김장환(극동방송 이사장)·이영훈(여의도순복음교회 담임) 목사
에 대한 특검의 전격 압수수색이
교계에 충격을 안기고 있다. 특히
일각에서는 김장환 목사가 교계 대
표적 ‘친미 인사’라는 점에서 이번
압수수색에 대한 외교적 해석까지
나오고 있다.

해병대원 순직 사건 관련 의혹
을 수사하는 특별검사(특검)팀은
18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의 ‘구명로비 의혹’을 조사하기 위
해 두 목사의 자택과 사무실에 대
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해당 의혹은 2023년 7월 채상병
순직 후 임 전 사단장이 업무상 과
실치사 혐의자에 포함됐다가 제외
되는 과정에 로비가 있었는지에 대
한 것이다. 특검은 김장환·이영훈
목사도 여기에 연루됐을 가능성을
두고 이번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두 목사가 이 사건에 실제 관여



김장환 목사(왼쪽)와 이영훈 목사 ©기독교일보 DB

했는지를 떠나 종교계 인사, 그것도
교계 ‘지도자급’으로 분류되는 이들
에 대한 이례적 강제수사는 교계는
물론, 정치·사회권에도 상당한 파
장을 일으키고 있다. 종교계 수사
는 헌법의 ‘종교의 자유’와도 연결
돼 있어 예민한 문제일 수밖에 없
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나경원 국회의원은 19
일 페이스북에 쓴 글에서 “김장환
목사, 이영훈 목사. 기독교계를 대
표하는 영적 지도자들에 대한 압수
수색은, 단순한 수사가 아니”라며 “

이재명 정권의 3대 특검은 이제 ‘
야당 말살’에 이어 ‘자유신앙세력의
말살’로 나아가고 있다”고 했다.

나 의원은 특히 “정권의 이해관
계와 결을 달리하는 신앙 공동체
들이 연이어 수사 선상에 오르고,
사회적 낙인과 여론 재판을 동시
에 받고 있다는 점에서 이는 특정
종교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의 자
유’ 자체에 대한 구조적 위협”이라
고 했다.

또한 “정권의 목표는 분명하다.
정치적 반대 세력과 신앙의 양심

세력을 동시에 침묵시키는 것”이
라며 “비판과 견제를 제거한 채 권
력의 독점을 완성하려는 것이다.
압수수색이 아니라, 검박이고 협
박”이라고 했다.

나 의원은 “다음은 예배당이 아
니라 신앙 그 자체가 겨냥될 것”이
라며 “자유를 지키는 모든 이들과
함께 침묵 대신 외침으로, 두려움
대신 믿음으로, 이 끝없는 광란의
탄압에 맞서 끝까지 싸워야 한다”
고 했다.

한편 김장환 목사에 대한 압수수

색을 두고 일각에서는 “한미관계가
흔들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
소리도 나온다. 김장환 목사가 교
계의 대표적 친미 인사이기 때문이
다. 김 목사는 올해 초 한국 정부를
대표해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
의 장례식에 참석하기도 했다.

이영훈 목사는 자신이 특검의 압
수수색 대상이 된 것에 대해 20일 “
저는 채상병 사망사건과 관련하여
관계 기관이나 공직자에게 청탁 등
어떠한 언급도 한 일이 없다”며 “이
사건과 관련하여 목회자나 기타 어
떤 분에게도 사건에 대해 언급하거
나 부탁한 일조차도 없다”고 했다.
또한 “이 사건과 관련하여 관련자
나 교인 누구로부터도 기도 부탁받
은 일조차도 없다”고 했다.

이 목사 측 법률대리인인 강찬우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특검
의 압수수색 집행 과정에 대해 “위
법한 압수 수색”이자 “과잉 수사”
라고 반발하기도 했다. 김장환 목
사는 아직 아무런 입장을 내지 않
았다. 다만 20일 원천안디옥교회
주일예배 설교 도중 “왜 분 안 나겠
어? 왜 화 안 나겠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저 난리들을 때리니”라고
이번 압수수색을 의미하는 듯한 발
언을 했다.

김진영 기자

한교총 “목회자 압수수색, 종교 자유 침해 우려 야기”

성명 통해 유감 표명…성도와 목회자들에게 큰 충격

한국교회총연합(대표회장 김중
혁, 공동대표회장 김영걸·이 욱·박
병선 목사, 이하 한교총)이 김장환
(극동방송 이사장)·이영훈(여의도순
복음교회 담임) 목사에 대한 특검의
압수수색에 유감을 표명했다.

한교총은 22일 ‘채상병 특검팀
의 종교시설에 대한 과도한 압수
수색에 깊은 유감이다’라는 제목으
로 발표한 이 성명에서 “이번 압수
수색 대상에는 대표자 사택과 개인
소유물뿐 아니라 교회시설까지 포
함되었다는 점에서 충격적”이라고
했다.

이어 “우리 헌법 제20조는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고 선
언하고 있으며, 이는 신앙, 예배, 종
교적 표현, 종교공동체의 자율성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기본권”이라며
“압수수색 등 교회에 대한 공권력
행사는 공공안전 및 질서유지라는
정당한 목적하에, 그 수단의 적합



(왼쪽부터) 한교총 공동대표회장 박병선 · 이 욱 · 김영걸 목사,
대표회장 김중혁 목사 ©기독교일보 DB

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꽃다운 나이의 청년이 부
당한 명령으로 목숨을 잃은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데 한국교회는 깊이
공감하며 협조의 뜻을 가진다”면서
도 목회자들에 대한 이번 압수수색

에는 유감을 표명했다.

한교총은 그 이유로 우선 “참고인
에 대한 강제처분의 정당성이 부족
하다”며 “해당 목사는 피의자가 아
닌 참고인 신분이므로, 압수수색과
같은 강제처분보다 임의제출 요구
나 진술 청취 등의 방식이 우선되었

어야 한다. 법적으로 참고인에 대해
서도 압수수색이 가능하나, 종교시
설은 종교의 자유를 고려해 더욱 신
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교회의 상징성과 신성을
침해했다”며 “교회는 단순한 물리
적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전당이며, 신앙공동체의 중
심지다. 이에 대한 공권력의 침입은
교인 전체에게 모멸감을 줄 수 있
다. 특히 여의도순복음교회는 신도
수 60만 명에 이르는 한국을 대표하
는 교회로, 종교의 자유 침해의 파
장이 크다”고 했다.

또한 “비례성과 최소침해 원칙을
고려하지 않았다”며 “단순한 의혹
만으로 여의도순복음교회 당회장
실 전체를 대상으로 한 포괄적 압수
는 구체적인 범죄 혐의와 직접적인
관련성을 결여할 가능성이 크다. 수
사의 필요성을 인정하더라도 종교
시설에 대한 침입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제하거나 제한된 방식으
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다.

한교총은 “이번 압수수색은 절차
적 정당성 여부를 떠나 종교의 자유
침해 우려를 야기했고, 교회 공동체
전체에 범죄자 프레임을 씌우는 모
욕감을 유발했다”며 “이는 새 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과 국가 지도자들
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1,000만 한
국교회 성도들과 목회자들에게 큰
충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교회 예배당은 단지
물리적 공간이 아니라 신자들의 신
앙 실천의 중심이며, 국가권력은 이
에 대해 최대한 존중하라 △특검팀
은 참고인을 피의자처럼 취급하고,
교회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시행
한 데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하라 △
향후 모든 공권력은 교회의 종교적
상징성과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신중한 방식으로 행사하
라고 촉구했다.

김진영 기자



CONGRATS, GRADUATES!

APU	MICA	RUTGERS	UC BERKELEY	UCI	U OF I URBANA
BIOLA	MOUNT ST MARY'S	SANTA CLARA UNIVERSITY	UC DAVIS	UCSD	UNIVERSITY OF PITTSBURG
BOSTON UNIVERSITY	NORTHEASTERN	SCAD	UC MERCED	UCSB	U OF M TWIN CITIES
DREXEL UNIVERSITY	NYU	ST LAWRENCE UNIVERSITY	UC RIVERSIDE	UCSC	U OF WASHINGTON
FORDHAM UNIVERSITY	PARSONS	SYRACUSE	UC SANTA CRUZ	U OF ARIZONA FLAGSTAFF	UNIVERSITY OF THE PACIFIC
LMU	PEPPERDINE	TEMPLE	UCLA	U OF I CHICAGO	VIRGINIA TECH



**Now Enrolling for the
2025-2026 School Year!**
(213) 487-5437
ncahuskies.org

NEW COVENANT ACADEMY

3119 W. 6th Street, Los Angeles, CA 90020
Upper Campus

221 S. Juanita Avenue, Los Angeles, CA 90004
Lower Campus

아일랜드, 2024년 낙태 건수 1만852건... 합법화 이후 최다



©Unsplash/Gregory DALLEAU

아일랜드 보건부가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동안 국내에서 시행된 낙태 건수는 총 1만 852건으로, 2019년 낙태가 합법화된 이후 연간 최다치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도인 2023년(1만 33건)보다 8.16% 증가한 수치이며, 낙태 합법화 첫 해였던 2019년(6,666건)과 비교하면 무려 62.8%나 증가한 것이라고 영국 크리스천투데이(CT)가 전했다.

아일랜드의 낙태 합법화는 2018년 국민투표를 통해 헌법상 태아의 생명권을 보장하던 제8차 개헌 조항(Eighth Amendment)이 폐지되면서 이루어졌다. 이후 2018년 12월 20일 ‘임신중절 규제법’이 제정됐으며, 이듬해인 2019년 1월 1일부터 낙태 시술이 공식적으로 시행됐다. 법 개정 이전에는 아일랜드 내에서의 낙태가 극히 제한됐기 때문에 많은 여성들이 외국으로 원정을 떠나야 했다. 실제로 낙태가 허용되기 직전인 2018년, 영국(잉글랜드 및 웨일스)에서 낙태를 받은 아일랜드 여성은 2천8백79명에 달했으며, 기존 법률 하에서 국내에서 시술된 건수 32건을 포함하면 총 2천9백11건에 이르렀다.

낙태 서비스 도입 이후, 아일랜드 국내의 낙태 건수는 매년 증가해왔다. 2022

년에는 8천1백56건이 보고됐으며, 이와 별도로 201명의 아일랜드인이 영국에서 낙태를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 해에는 북아일랜드 출신 여성 12명이 아일랜드 내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기도 했다.

2024년 낙태 사례 중 98.7%는 여성의 생명이나 건강에 위험이 있거나 태아가 치명적 질환을 가진 경우가 아닌 일반적인 사유에 해당됐다. 월별 통계에 따르면 1월에 시술 건수가 가장 많아 1천56건이었으며, 8월은 849건으로 가장 적었다.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아일랜드에서 공식 보고된 전체 낙태 건수는 4만 8천9백84건에 이른다.

이에 대해 영국 생명옹호단체 ‘생명에 대한 권리 UK’(Right To Life UK)의 캐서린 로빈슨(Catherine Robinson)은 “2024년의 1만 852건의 낙태는 비극”이라며 “이 중 하나하나가 고유한 인간 생명이었고, 생명이 시작되자마자 끝났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녀는 이어 “2019년 낙태가 합법화된 이후 낙태 수는 급증해왔다”며 “불과 10년 전만 해도 아일랜드에서는 태아의 생명이 법적으로 보호받았지만, 이제는 연간 1만 건이 넘는 낙태가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미경 기자

英 런던 교회, 거리 전도 제한 조치 철회 이끌어내



바바툰데 발로군 목사.©CLC.

영국 런던 서부의 한 교회가 거리 전도와 전도지 배포, 성경 구절 공개 등을 금지한 지방자치단체의 조치를 법적 대응을 통해 철회시키는 데 성공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오순절교회 소속인 킹스버러 센터(Kingsborough Centre)는 런던 힐링턴 자치구가 발표한 공공장소보호명령(PSPO: Public Spaces Protection Order)이 자교회 거리 사역을 사실상 금지한 데 반발하며 사법 심사를 신청했다. 교회 측은 해당 명령이 기본권을 침해하며 법적으로도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이 명령은 2023년 엑스브리지(Uxbridge) 시내 중심가에서 확성기 사용, 종교 문서 배포, 성경 구절 게시 등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교회는 기도회 중 해당 사실을 인지했고, 이후 관계자들과의 회의에서 사전 협의가 없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고 기독교 인권단체인 ‘크리스천 컨선’(Christian Concern)은 이 같은 사실을 성명으로 전했다. 교회 측에 따르면 PSPO가 발효된 다음 날, 경찰은 거리 전도자들에게 명령 위반 시 벌금 100파운드(약 18만 원) 또는 형사 처벌 가능성을 경고했다.

크리스천 컨선의 법률 부서인 기독교 법률센터(CLC)는 교회가 사용한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과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기독교란 무엇인가’ 등의 제목이 붙은

전도지가 문제로 지적됐다고 밝혔다.

킹스버러 센터는 7·7 런던 테러 이후 평화 기도회 개최, 교육 서비스 제공 등 지역사회 봉사와 전도 사역을 수년간 이어온 단체다. 2024년 2월에는 엑스브리지 중심가에서 고린도전서 6장 구절을 인용하며 설교하던 목회자 드웨이 로페즈(Dwayne Lopez) 목사와 교인들이 경찰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혐오 표현에 대한 민원을 접수했다며 확성기 사용과 설교 내용을 문제 삼았고, 바디캠 영상을 통해 ‘혐오 범죄’의 정의를 설명했다. 체포는 없었지만, 로페즈 목사는 이를 “종교 자유에 대한 억압”이라고 비판했다.

교회 지도자인 바바툰데 발로군(Babatunde Balogun) 목사는 텔레그래프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이웃을 사랑했다는 이유로 범죄자 취급을 받았다”며 “거리 전도는 우리의 믿음과 공동체 사역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러한 제한은 두려움의 분위기를 조성해 사역을 막았다”고 지적했다.

교회 측 법률 대리인은 “PSPO가 평화롭고 합법적인 활동까지도 금지하고 있다”며 “기독교 전도가 사회적 위해나 불안감을 초래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PSPO가 유럽인권협약 제9조(종교의 자유), 제10조(표현의 자유), 제11조(집회의 자유)를 위반했다고 강조했다.

2024년 8월, 영국 고등법원은 해당 사안에 대한 사법 심사 진행을 허가했다. 이후 12월, 힐링턴 자치구는 교회 및 법률팀과의 논의를 거쳐 PSPO 일부 내용을 철회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자치구는 확성기 사용 및 종교 메시지 노출 관련 제한 조항도 제거하며, 새로 개정된 PSPO에 이를 명시하기로 했다. 힐링턴 자치구는 이번 조치가 특정 종교 단체를 겨냥한 것이 아니었다고 해명했으며, 교회들의 우려를 반영해 2024년 초 초기 검토와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PSPO는 5월 1일부터 발효됐다.

이미경 기자

문서선교를 후원하는 교회

Christianity Daily

LA 지역

주일예배 오전 11:00
어린이예배 주일 오후 2:00
장년기초성경공부 주일 오후 2:00

영혼의 생 내적치유 영성집회
- 월-금 오후 7:30
- 토 오후 3:00

김성식 담임목사

LA백송교회
백합화처럼 순결하고 소나무처럼 늘 푸르른 영혼으로 소생시키는 교회

6031 Linden Ave, Long Beach, CA 90805
T. (562) 606-2345, (424) 445-8070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 (내세대에배 오전 9:15)
3부예배차세대예배 오전 11:30
대학청년부/EM 오후 2:00

영혼의 생 내적치유 영성집회
- 월-금 오후 7:30
- 토 오후 3:00

김기섭 담임목사
www.LASarang.com

LA사랑의교회
평신도를 깨우고 이만2세를 책임지며, 이만가정을 치료하며, 선교명령을 순종하는 교회

261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06 (Olympic & Edson 코너)
T. (213) 386-2233

주일예배 오전 10:50
금요일참과 삶 공부 오후 7:00
아침말씀예배(월-토) 오전 9:00

씨니김 담임목사

LA씨티교회
일터교회를 세우는 예수 공동체

741 S. Crenshaw Blvd., LA, CA 90005
T. (323) 833-9090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0:50
청소년예배 오전 10:50

어린이예배 오전 10:50
새벽예배 오전 6:00 (화-토)
토요일전새벽예배 오전 6:30

한천영 담임목사

갈릴리선교교회
가족같은 교회, 가족 이상의 가치

3721 Marmion Way., Los Angeles, CA 90065
T. (323) 735-6412 / gmcchurch.com

주일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토) 오전 6:30

엘리아 김 담임목사

나눔과 섬김의 교회
세상속에 나이가 나누고 섬기는 교회

439 S Western, #100, LA, CA 90020
T. (213) 272-6031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45

새벽예배 오전 5:30 (월-토)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

진유철 담임목사

나성순복음교회
성령충만함으로 말씀 위에 세운 뜻을 이루여가는 예배공동체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 (323) 913-4499 / F. (323) 913-4494

주일예배 오전 7:30, 9:00, 11:00
교육부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11:00, 9:30
청년부예배 오후 1:30

박은성 담임목사

나성영락교회

1721 N. Broadway, Los Angeles, CA 90031
T. (323) 227-1400 web@youngnak.com

주일예배 오전 10:3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주일학교 오전 10:3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토요일) 오전 6:00

김성원 담임목사

남가주새소망교회
예배 성령 선교를 받아 함께 달려가는 예수그리스도 공동체

11840 Paramount Blvd., Downey, CA 90241
T. (562) 674-3016, cell. (562) 417-1800
www.newhopechurchsc.org

주일1부예배 오전 7:30 분당
주일2부예배 오전 9:30 분당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분당
주일4부예배 오후 1:30 비전센터
OMC 주일학교 오전 11:30 교육관 1층

OMC 중등부 오전 11:30 교육관 4층
OMC 소년부 오전 11:30 교육관 427호
토요새벽기도회 오전 6:00 분당
주중새벽기도회 온라인(Online)
주요새벽기도회 오전 10:00 분당

김지훈 담임목사

동양선교교회

424 N.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4
T. (323) 466-1234 Email: omccoffee1@gmail.com

주일예배 1부 오전 8:15
주일예배 2부 오전 9:50
주일예배 3부 오전 11:30
주일예배 4부 오후 2:00

금요기도회 오후 7:30
수요/금요일예배 오후 7:30
토요일예배 오전 6:00
EM Worship Sunday 2:00

김일형 담임목사

새생명오아시스교회

1041 S. Oxford Ave. Los Angeles, CA 90006
T. (323) 730-7000

주일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5:30(화-토)

강지원 담임목사

새 한우리교회
말씀과 예배가 살아있고 자유와 회복이 있으며 선교와 전도하는 교회

1818 S Western Ave #403., LA, CA90006
T. (323) 702-6709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금요저녁기도회 오후 8:3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이수호 담임목사

올림픽장로교회

3055 Wilshire Blvd. #220., LA, CA 90010
T. (213) 387-1700 olympicch@gmail.com

주일예배: 아침 10시반
수요일예배: 저녁 7시
매일 오전기도회: 9-11시
매일 저녁기도회: 8-10시

라디오 방송설교
라디오사울 AM 1560
토요일 새벽기도회 오전 6:00 분당
주일 아침 6시
매일 저녁기도회: 8-10시

서사라 담임목사

주님의 사랑 교회
세계선교와 함께 예수님의 열정적인 신부로 단장하는 교회

216 E. 31st St. Los Angeles CA 90011
T. (213) 574-9400
lordslvechristianchurch@yahoo.com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0:30
3부예배 오후 1:00
라티노 오후 5:00

GCEM 오후 1:00
수요/금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6:00 (월-토)

신승훈 담임목사

주님의 영광교회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섬기고 사랑하는교회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T. (213) 749-4500 / F. (213) 749-6700

주일예배 1부 오전 8:00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EM예배 오전 11:00

초등부 주일 오전 11:00
중고등부 주일 오전 11:00
토요새벽기도회 오전 6:00 분당/온라인

김창섭 담임목사

세계선교교회

927 S. Menlo Ave, Los Angeles, CA 90006
Tel. (213) 388-1927 www.wmcla.com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유아, 유년부 오전 11:00
중고등부 오전 10:50

한국학교 오전 9:3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토)
토요새벽 오전 6:00

고광선 담임목사

한길교회

4050 W. Pico Blvd, Los Angeles, CA 90010
T. (323) 735-0200 churchtheway@gmail.com

주일예배 오전 10:30
중고등부 성경공부 주일 오전 9:30
대학청년부 성경공부 주일 오전 9:30

한현중 담임목사

크렌셔장로교회

1060 Crenshaw Blvd, Los Angeles, CA 90019
T. (213) 407-1600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유아, 유년부 오전 11:00
중고등부 오전 10:50

EM대청 오후 1:30
금요찬양기도회 오후 8:00
세탁기도회 오전 5:30 (월-토)
토요일예배 오전 6:00 (토)

곽부환 담임목사

한마음제자교회
심자가와 부활 위에 선 한마음제자교회

500 Shatto Pl. #410, Los Angeles, CA 90020
T. (213) 321-4433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30
교육부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월-토) 오전 5:30

국윤권 담임목사

충현선교교회
불러서(Calling), 고치고(Healing), 기르며(Maturing), 맞선다(Confronting)

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T. (818) 549-9191 / choonghyun.org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chdailya@gmail.com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chdailya@gmail.com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chdailya@gmail.com

사우스베이 지역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30
3부 EWS 예배 오후 2:00
유종중등부 예배 오전 8:40

주일아침 성경공부 10:40
금요기도회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이호민 담임목사

가디나선교교회

1044 W. 164th St., Gardena, CA 90247
Tel. 310) 532-0191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유아부,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45(화-토) / 6:20(토)

이항영 담임목사

남가주기쁨의교회

25500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 326-0300, http://rpcsc.com

문서선교를 후원하는 교회

Christianity Daily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예배 오전 10:00
수요예배 오후 8:00
수요기도회 오후 9:00
새벽기도회(토) 오전 6:00

윤성현 담임목사

늘푸른동산교회

17116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562) 774-7224 / evergreenhill.org

1부예배 오전 8:30 유아/유치부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EM 1부 9:30/ 2부 11: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중/고예배 오전 11:00

김정훈 담임목사

대홍장로교회

파송가라,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내라(출3:9~10)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310) 719-2244 / dkpc.org

1부 예배 오전 8:00 금요 예배 금요일 저녁 7:30
2부 예배 오전 10:45 새벽 예배 매일 오전 6:00
EM성인예배 오전 9:30

김경한 담임목사

은혜로교회

새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라
431 Madrid Ave. Torrance, CA 90501
Tel. 310)787-7766 / www.gwctorrance.com

1부예배 오전 9: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토)
3부예배 오후 2:00

이종용 담임목사

코너스톤교회

이땅의 참교회, 말씀대로의 교회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 530-4040 / F. (310) 530-8400 / cornerstonetv.com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45
EM 예배 오전 9:45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8:00
KM장년예배 오후 2:00 새벽예배(월-토) 오후 6:00

토렌스 조은교회

주님앞에 드러짐으로 오병이여의 기적을 경험하는 공동체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T. (310)370-5500 / www.torrancecgcc.org

주일1부 오전 7:45 수요예배 오후 7:30
주일2부 오전 9:45 새벽기도회 월-토 오전 6:00
주일3부 오전 11:30
EM예배 1부 오전 9:45/2부 오전 11:30

고창현 담임목사

토렌스제일장로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
1880-1900 Crenshaw Blvd, Torrance, Ca 90501
T. (310) 618- 2222

1부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중고등부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GROEM(예배) 오전 11:00 (토요일) 오전 6:00
주일교육부예배 오후 7:30

방상용 담임목사

세리토스선교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여 Step Up 하고 Step Out 하는 교회 (창 6:7)
12413 E. 195 th St. Cerritos, CA 90703
T. (562)402-2919 www.cmchome.org

주일1부예배 8:00am 주일EM예배 11:00am
주일2부예배 9:30am 수요찬양집회 7:30pm
주일3부예배 11:15am 토요새벽예배 6:00am
주일교육부예배 11:00am 주중새벽예배(온라인) 5:30am

정유성 담임목사

오렌지한인교회

643 W. Malvern Avenue, Fullerton, CA. 92832
T. (714) 871-8320 / www.okcc.org

1부예배 오전 7:30 금요찬양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30 장미대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30 영어장년부 오전 9:30, 11:30
한여대대학원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5:30(월-금) 6:00(토)

구봉주 담임목사

감사한인교회

예수 믿고 변화되어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 (714) 521-0991 / F. (714) 521-4636
www.thanksgivingchurch.com

모레노밸리 예배시간: 매주 일 오후 3시
LA 벨가든구국대전: 매주 수요일 오전 11시

이우호 담임목사

CRPC 모레노밸리한인교회/LA구국재단

24725 Alessandro Blvd. Moreno Valley CA 92553
T. (954) 200-0875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 오전 11:00
2부 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5:30
수요예배 오후 7:30 Youth/ College 주일오전 11:00

지영환 담임목사

다우니제일 교회

주를 기쁘시게하는 교회 (고후 5:9)
7948 Quill Dr. Downey, CA 90242
T. (562) 861-1004 www.downeyfirstchurch.org

주일예배 오전 11:30
찬양예배 오전 11:00(수)
중보기도회 오전 9:30(목)
제자상서 오전 9:30(금)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토)

림학춘 담임목사

라구나힐스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은혜와 열정의 GnP 300
24442 Moulton Parkway, Laguna Woods, CA 92637
T. (949)380-7777 / www.lagunaumc.org

1부예배 오전 7:00 성인 영아예배 오전 9:00,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9:00 일반어 예배 오후 1:15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학교 오전 9:00, 오전 11:00
청년예배 오후 2:00

김한요 담임목사

베델교회

역동적 복음, 능동적 선교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 (949) 854-4010 / F. (949) 854-4018

주일예배 1부 오전 7:30 수요예배 오후 7:00
2부 오전 9:15 중고등부 오전 11:15
3부 오전 11:30 한여부 오후 1:00
4부 오후 2:00 KM대학원부 오후 2:30

박신웅 담임목사

얼바인은누리교회

다음세대를 세우고 복음으로 다가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공동체
17200 Jamboree Rd., Irvine, CA 92614
T. (949)261-9100 / vision.onnuri.org

1부예배 오전 7:30 청년부예배 오후 2:00
2부예배 오전 9:15 새벽기도회 오전 6:00 (월-금)
3부찬양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30

남성수 담임목사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

평신도 지도자들을 세워 초대교회 역사 이뤄가는 교회
14381 Magnolia St.,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3-1652 / kccoc.com

1부예배 오전 07:20 새벽예배 평일 오전 05:30
2부예배 오전 09:10 토요일 오전 06:00
3부예배 오후 11:20 금요성령예배 오후 07:30
4부예배 오후 2:00

한기홍 담임목사

은혜한인교회

행복한 교회 삼급받는교회 세계선교를 마무리짓는 교회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 446-6200 / F. (714) 446-6207

주일 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박 훈 담임목사

함께 걷는교회

하나님, 성도, 이웃과 함께 걷는 교회
6102 Stanton Ave., Buena Park, CA 90621
T. (213)598-9130 breadhoon@hanmail.net

주일예배 1부 오전 7:45 수요아성예배 오전 10:00
주일예배 2부 오전 9:30 금요예배 오후 7:30
주일예배 3부 오전 11:30 새벽예배(평일) 새벽 5:30
(청년/교육부서) (토/주일) 새벽 6:00

김종규 담임목사

오렌지카운티 제일장로교회

8500 Bolsa Ave,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9-9191 / oc1church.com

1부예배 오전 8:20 수요기도회 오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청년예배 EM 오후 1:30 오전 6:00(토)

주혁로 담임목사

주님의빛교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5271 Lincoln Ave., Cypress, CA 90638
T. (714)252-9191 / www.lordlight.org

주일 1부예배 8:00 AM 금요찬양예배 7:45 PM
주일 2부예배 11:00 AM 교회학교예배 11:00 AM
새벽기도회 화-토 6:00 AM

신용환 담임목사

주님세운교회

17910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 (310) 315-4020

LA 동부 지역

1부예배 오전 7:30 주일학교/중고등부 오전 11:40
2부예배 오전 9:40 대학청년부 오전 11:40
3부예배 오전 11:40 금요성령집회 저녁 7:30(금)
EM(Holy Wave) 오전 11:40 새벽예배 오전 5:20 (월-금)

우영하 담임목사

동부사랑의교회

복음으로 사는 사람 (창 12:2-3)
5540 Schaefer Ave. Chino, CA 91710
T. (909)590-3722 www.eastsarang.org

1부예배 오전 7:45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45
2부예배 오전 9:45 새벽기도회(월-토) 오전 6:00
3부예배 오전 11:45

고송희 담임목사

아름다운교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교회
17175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810-3455 / F. (626) 964-5559

주일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화-금) 오전 5:30
주일학교 오전 11:20 (토) 오전 6:00
영어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구경모 담임목사

한빛장로교회

11608 Valley Blvd., El Monte, CA 91732
T. (626)444-0521

1부예배 오전 7:30 EM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9:30 EM 2부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출강해 오후 7:30
4부 청년예배 오후 7:45 새벽예배 오전(월-금) 5:30 (토) 오전 6:00

인랜드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로 사명을 위하여 사는 교회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 (909)622-2324, F. (909)622-1480 / inlandchurch.org

잭 그래함 목사 “美 교회, 성경으로 돌아가야 할 시점”



잭 그래함 목사. ©The Christian Post

미국 텍사스 주 플라이노에 위치한 프레스턴우드 침례교회(Prestonwood Baptist Church)의 담임이자 전 남침례회(SBC) 총회장인 잭 그래함(Jack Graham) 목사가 “미국 교회는 지금 갈림길에 서 있다”고 경고하며, 해답은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크리스천포스트(CP)와의 인터뷰에서 “지역 교회가 다시 부흥하고, 목회자들이 진리를 선포하는 데서 회복이 시작된다”면서 ‘예수 책’(The Jesus Book)을 집필한 이유도 바로 성경으로 돌아가게 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그래함 목사가 이끄는 프레스턴우드 침례교회는 4만 5천 명 이상의 교인이 모이는 대형 교회다. 그는 이 책을 자신의 “삶 전체의 메시지를 담은 책”이라고 소개하며, “만약 내가 단 한 권의 책만 쓸 수 있다면 이것이 바로 그 책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교회가 성장하는 가장 큰 이유는 메시지에 충실했기 때문”이라며, “복음과 하나님의 무오한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데 집중할 때 하나님께서 교회를 부흥케 하신다”고 덧붙였다.

그래함 목사는 누가복음 24장에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께서 성경 전체를 통해 자신에 대해 설명해주신 장면을 인용하며, 성경이 단순한 종교 문서

가 아니라 ‘하나님 사랑 이야기’이자 ‘구속의 이야기’임을 강조했다.

그래함 목사는 “Z세대 및 대학생들 사이에서 트렌드나 외적인 형식보다 순수한 복음과 진정성을 갈망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많은 젊은이들이 성경적 세계관을 세우고 싶어 한다”며, 자신의 교회 청년부에서도 그러한 움직임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전에는 청소년 사역이 피자 파티에 머무는 경우가 많았지만, 지금은 성경의 입재와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실제적인 경험을 제공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소셜미디어와 일부 사역자들 사이에서 등장하는 ‘거짓 복음’에 대한 우려도 표했다. 그는 “일부 여성 사역 지도자들이 성경 구절을 인용해 겉으로는 성경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자아 중심적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위조 지폐를 구별하는 방법은 진짜를 아는 것”이라며, “하나님 말씀을 삶 속에 깊이 새겨야 한다”고 조언했다.

목회자들에게는 인격과 성품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한 그래함 목사는 “목회는 인격 없이는 할 수 없는 사역”이라며, “목회에 부름받은 젊은이들은 성품으로 시작하고, 절망하지 말고 항상 흔들리지 말라”고 격려했다.

자신의 목회 여정을 돌아보며 그는 “예수님을 섬기는 데는 대가가 따르지만, 그만큼 보상이 따르는 일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그래함 목사는 ‘예수 책’이 성경의 기초부터 시작해 말씀을 삶에 적용하는 실천까지 담아낸 책이라고 소개하며, “성경 번역, 선택 방법, 영적 전쟁, 세계관, 기도 등 다양한 주제를 담았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그는 “이 책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삶에 적용하도록 영감을 주는 책”이라며 “모든 그리스도인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미경 기자

뉴욕 양키스 애런 저지 “예수님과의 관계가 진정한 만족의 근원”



뉴욕 양키스의 외야수 애런 저지. ©mlb.com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는 메이저리그 뉴욕 양키스의 슈퍼스타인 애런 저지(Aaron Judge) 선수가 자신의 삶에서 진정한 만족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 비롯된다고 고백했다고 18일 보도했다.

두 차례 아메리칸리그 MVP를 수상한 저지는 지난 15일 애틀랜타에서 열린 올스타게임을 하루 앞두고 열린 기자회견에서, CBN 뉴스가 던진 질문에 신앙에 대한 소신을 밝혔다. CBN은 저지에게 “명성과 부가 모든 문제를 해결해줄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에게 어떤 말을 해주고 싶은가”라고 물었고, 이에 저지는 망설임 없이 “우리의 주님이시며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언급했다.

그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플랫폼과 능력을 주셨다”며, 선수로서의 모든 성공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된 것은 놀라운 일이고 감사한 일이지만, 그 어떤 것보다 나에게 큰 만족을 주는 것은 예수님과의 관계다”라고 덧붙였다.

저지는 또 “예수님과의 관계를 맺고, 그 관계를 계속해서 쌓아가라. 그러면 당신의 삶에 진정한 해답을 얻게 될 것”이라고 조언하며, 믿음의 중요성을 다시금 강조했다. 이번 올스타게임은 저지가

아버지가 된 후 처음 출전하는 경기였다. 뉴욕 양키스는 이날 X(구 트위터)를 통해 저지의 배트 사진을 공유하며 이 특별한 순간을 기념했다. 배트에는 고린도후서 5장 7절과 함께 “믿음으로 살지, 보이는 것으로 살지 않는다”는 문구, 그리고 십자가 그림이 새겨져 있었다.

저지의 X 계정 커버 이미지도 같은 성경 구절이 포함돼 있으며, 그의 자기소개 첫 단어는 ‘Christian’(기독교인)이다. 이어 “Faith, Family, then baseball”이라는 문장이 그의 삶의 우선순위를 뚜렷이 보여준다.

저지는 어린 시절 감리교회에 출석했으며, 현재도 신앙을 삶의 중심에 두고 있다. 기독교 작가 에릭 메타악사스는 2017년 칼럼에서 저지의 X 자기소개가 거의 10년 동안 바뀌지 않았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그의 신앙이 변함없이 이어져 왔음을 강조했다.

저지는 또한 입양된 가정에 대해 “그들이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게 하셨다”고 말해왔다. 그는 자신을 “축복받은 사람”이라 부르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믿음을 고백해 왔다.

최승연 기자

하나님의 진리를 풀어낸 종, 존 맥아더를 기억하며



로빈 슈마허(Robin Schumacher)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는 기독교 변증가이자 작가인 로빈 슈마허의 기고글인 ‘존 맥아더 - 5가지 재능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John MacArthur — A 5-talent man of God)을 최근 게재했다.

기독교 변증가로 활동하고 있는 슈마허는 작가로도 활동하면서 많은 책을 썼고 미국 내의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하고 있다. 다음은 기고글 전문.

아주 오래전 일이지만, 필자는 그날 밤을 아직도 생생히 기억한다. 주중 어느 날 밤, 여자친구 집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필자는 지역 기독교 라디오 방송을 틀었다. 그 시간대에는 음악 대신 설교 방송이 흘러나왔는데, 고속도로로 진입하던 순간, 유독 힘 있고 권위적인 목소리로 성경 말씀을 선포하는 설교자의 음성이 귀에 꽂혔다. 당시로서는 흔치 않은 톤과 강도였다. ‘도대체 이 사람은 누구지?’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었다. 그 시절에는 지금처럼 쉽게 검색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지만, 필자는 그 목소리의 주인공이 누구인지 꼭 알고 싶었다. 마침내 이름을 알아냈다. 존 맥아더(John MacArthur)였다. 그리고 다시 생각했다. ‘이 사람, 도대체 누구지?’ 당시 필자는 신앙을 막 시작한 새신자였다. “갓 태어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짓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벧전 2:2)라는 말씀처럼, 성경을 갈망하고 있었다. 그 무렵, 맥아더처럼 강력하게 성경을 전하는 사람은 없었기에, 필자는 그의 책을 모으고, 테이프(그땐 웹도 없었으므로)를 사서 들고, 그가 나오는 방송을 자주 챙겨 들었다.

그로부터 30년이 훌쩍 지났지만, 그는 여전히 필자에게 성경을 가르쳐주고 있다. 필자가 지금도 주로 사용하는 스테디 성경은 그의 편집본이다. 그 이유는 명확하다. 많은 주석 성경들이 어려운 본문을 피해 가지만, 그는 정면으로 다룬다. 사실 어려운 본문을 이해하고자 주석 성경을 찾는 것 아닌가?

필자가 신약을 강해식으로 연구할 때면, 그의 주석 세트는 늘 첫 번째 참고 자료다. 팟캐스트와 mp3 시대가 열린 이후로는 헬스장에서도 그의 설교를 들으며 운동해왔다. 필자의 서재에는 그의 책이 꽤 많이 꽂혀 있고, 이 칼럼을 꾸준히 읽는 독자라면 필자가 그의 인용을 자주 한다는 사실도 알고 있을 것이다.

필자가 그를 삶의 길잡이로 삼아왔던 가장 큰 이유는, 프랭클린 그레이엄이 그

가 주님 곁으로 떠난 날 SNS에 올린 이 문장에 응축되어 있다. “그는 성경의 한 구절에서 누구보다도 깊은 의미를 끌어낸 사람이었다.”

사실이다. 존 파이퍼도 맥아더에 대해 이렇게 평했다. “그가 설교단에서 성경 본문을 다루는 모습은 그저 경외할 수밖에 없었다.” 물론, 맥아더의 말씀 중심적인 사역은 수많은 비판도 동반했다. 뉴욕 타임스의 루스 그레이엄 기자는 그를 “신학적으로 타협하지 않는 목회자”로 묘사했다. 이 표현은 자연스럽게 많은 반대 의견을 끌어모은다.

혹시 독자 중에도 그에 대한 비판적인 시선을 가진 이가 있을지 모른다. 이 글을 다 읽기도 전에 댓글을 달아 그의 특정 견해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말을 하려 하거나, 혹은 더 나아가 그를 비난하고 싶어지는 이도 있을 것이다. 그런 마음이 들더라도, 잠시 멈추자. 멈추는 게 좋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이 말하듯,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이는 곧 우리 모두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에 대해 100% 명확히 알 수 없다는 뜻이다. 필자도, 당신도 마찬가지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평생 붙들고 해석하며 살아온 사람에 대해 이야기할 때, 야고보서 1장 19절처럼 “말하기를 더디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또한 로마서 14장 4절을 떠올리자.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으며...”

비판보다 감사로 응답하자. 하나님께서 맥아더와 같은 사람을 통해 우리 세대에 진리의 말씀을 들려주셨음에 감사하자. 그는 60년 동안 한 아내와 가정을 지켰고, 56년 동안 한 교회를 목회했으며, 매주 5분씩 설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왔다. 그래서 앨버트 몰러 주니어(Albert Mohler Jr.)는 이렇게 말했다. “복음주의는 설교단 중심의 운동인데, 존 맥아더는 지난 반세기 동안 그 중심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설교단을 이끌었다.”

팀 켈러에 이어 이제 맥아더까지 떠난 지금, 필자는 존 파이퍼가 말한 이 한마디가 더욱 실감난다. “내 가장 친한 친구들은 이제 모두 죽은 이들이 되었다.” 필자가 지혜와 영적 통찰을 구했던 이들이 하나둘 하늘나라로 떠나며, 세상은 조금씩 더 어두워지는 듯하다.

예전 담임목사님이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를 설교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은 다섯 달란트로, 어떤 사람은 두 달란트나 한 달란트로 창조하신다.” 우리 세대의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 중 하나를 꼽자면, 존 맥아더가 빠질 수 없다. 하지만 그는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나는 나 자신을 모범으로 내세우고 싶지 않다... 사람들에게 내 삶이 기준이 되길 바라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 그가 평생 실천해온 사역 슬로건 “하나님의 진리를, 한 구절씩 풀어내다”를 그대로 그는 살았다. 그는 골로새서 1장 29절의 말씀처럼 고백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최승연 기자

화재로 교회 건물 전소... 美 침례교회 성도들, 잿더미 위에서 예배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주 달링턴 카운티에 위치한 플레전트 그로브 침례교회(Pleasant Grove Baptist Church)가 지난 19일(현지시간) 대형 화재로 100년 넘게 사용해 온 교회 건물을 잃었지만, 다음 날인 주일 아침 성도들은 무너진 교회 터 위에 텐트를 세우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

성도 티니카 리브스(Tinika Reeves)는 현지 언론인 WBTW에 “교회는 어디서든 (예배를) 드릴 수 있다. 오늘 이렇게 모두가 함께해준 것이 참 감사했다. 건물은 사라졌지만 교회는 여전히 함께 있었다”라고 말했다. 달링턴 카운티 보안관실에 따르면, 화재는 오후 4시경 발생했

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도착 당시 교회 건물이 이미 불길에 휩싸여 있었다고 밝혔다. 팜메토 지역 소방서(Palmetto Rural Fire District)를 비롯해 달링턴 소방서, 카운티 소방구역, 윈디힐, 웨스트플로렌스 구조대 등이 진화에 함께 투입됐다. 팜메토 소방서는 성명을 통해 “유진 토마스 목사님과 플레전트 그로브 침례교회 공동체에 깊은 위로와 기도를 보낸다”고 전했다.

이번 화재로 전소된 교회 건물은 1910년 지어진 역사적 건축물로, 교회 자체는 1869년 다니엘 제시 목사에 의해 설립된 달링턴 카운티 내 가장 오래된 흑인 교회 중 하나다.

이미경 기자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일(아기도회)(마지막주) 오후 8: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20(화-금) 오전 6:00(토)
EM예배 오후 1:00
수요예배 오후 7:30

할렐루야한인교회
제자된 삶을 실천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랑의 공동체

19648 Camino De Rosa, Walnut, CA 91789
T. (909) 595-3110 hnsla@hnsla.org

1부예배 오전 7:45
2부예배 오전 9:10
3부예배 오전 12:00
금요일 오후 7:30
새벽예배 (화-금) 오전 6:00, (토) 오전 6:30

ECO선한목자교회
교회여, 성숙하라!

2600 Grand Ave., Chino Hills, CA 91709
T.(909)591-6500 sunhanchurch.com

KM 주일예배 EM 주일예배 새벽예배
- 1부 07:30AM - 1부 09:00AM - 평일(화-금) 05:00AM
- 2부 09:15AM - 2부 11:00AM - 토요일 06:00AM
- 3부 11:00AM

김지성 담임목사

글로벌선교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생명의 공동체

23425 Sunset Crossing Rd Diamond Bar, CA 91765
T. (909)396-4441 www.igmc.org

대예배 11:00 AM Youth (8th ~ 12th) 11:00 AM
아동부 (1-5학년) 11:00 AM 수요 찬양 예배 수요일 7:30 PM
유아, 유치부 (2-5세) 11:00 AM 새벽기도회 화-토요일 6:00 AM
영아부 (24개월 이하) 11:00 AM

장수영 담임목사

언약 교회
은혜의 말씀, 사랑의 돌봄

1750 N. Towne Ave., Pomona CA 91767
T. (909)622-8815 https://covenantkoreanchurch.com

주일예배(KM) 오전 10:30 중·고등부(Youth) 오전 10:30
주일예배(EM) 오전 10:30 대학청년부(College) 오전 10:30
유년부(K-2) 오전 10:30 한글학교 주일 오후 12:40
초등부(3-5) 오전 10:30 새벽예배(화-토) 오전 6:00

최현규 담임목사

주님 CHURCH

주일예배 401 S. Palm St. La Habra, CA 90631
T. (626)901-919 Email : joonim0623@gmail.com

예배시간 매주오전 11:00

강문수 담임목사

로렘나무교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13133 Le Parc #1003, Chino hills, CA 91709
T. (909) 519-0876

LA 북부 지역, 라스베가스

주일 1부 오전 9:00 주일학교 오후 12:30
주일 2부 오후 12:30 주중새벽기도회 오전 5:30
젊은이 예배 오후 2:00 토요일새벽기도회 오전 6:00

김경진 담임목사

기쁜우리교회
주의 말씀은 내 밭에 동아이고 내 길에 빛이이니이다

125 S. Louise St. Glendale, CA 91205
T. (818)662-0400 www.joyfulccc.org

주일1부예배 오전8:00 중·고등부(아기레슬) 오전11:00
주일2부예배 오전11:00 영아부예배(민들레) 오전11:00
유아유치부 오전11:00 새벽기도회(화-토) 오전6:00
초등부 오전11:00 Youth 금요일(금) 오후7:30

유경재 담임목사

나성북부교회
성경을 배우며 성경에 충실한교회

8756 Woodley Ave. North Hills, CA 91343
T. (818)893-8755

주일 1부 오전 8:00 중·고등부 오전 10:30
2부 오전 10:30 한양청년 오후 12:30
EM예배 오전 10:30 수요일 오후 7:3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6:00

이정현 담임목사

만남의교회
거룩한 믿음으로 도약하는 교회

18101 Lassen St. Northridge, CA 91325
T. (818)882-9191 F. (818)882-9777 www.churchmannam.com

주일 1부 8:00AM 중·고등부 9:30AM/11:15AM
주일 2부 9:30AM 수요일교회 7:30PM
주일 3부 11:15AM 새벽예배 화-토 5:30AM
영아, 유아, 유치부 9:30AM/11:15AM

손창민 담임목사

에브리데이교회
예수로 충만한 교회

17037 Devonshire St, Northridge, CA 91325
Tel. (818) 832-6628 www.churcheveryday.org

1부 예배 오전 8:30 EM예배 (1부)오전 9:00
2부 예배 오전 11:00 EM예배 (2부)오전 11:00
금요일(영아)예배 오후 7:30 한양 청년부 주일오후 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오전 6:00(토)

오영찬 담임목사

웨스트힐장로교회
예수님처럼 믿는 교회(Believe Like Jesus)

23350 Welby Way, West Hills, CA 91307
T. (818) 884-2391

주일 대예배 오전 11:00
영아예배 오전 10: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6:00(화-토)

곽덕근 담임목사

은혜와평강교회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

9140 Haskell Ave., North Hills, CA 91343
T. (818) 894-9266

주일예배 오후 12:30
주일 EM예배 오후 12:30
새벽기도회 오전 6:00 (화-토)
화요일성경공부 오후 7:30

이건창 담임목사

발렌시아 샘물교회

25222 Wiley Canyon RD, Santa Clarita, CA 91321
Tel. (661)219-5434 www.sammmool.org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금요일성경회 저녁 7:45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5:30 / 토 오전 6:00
주일 3부 영아예배 오후 1:00

이충환 담임목사

주안에 교회
In Christ Community Church

19514 Rinaldi St., Northridge, CA 91326T
T.(818)363-5887 iccc.office1@gmail.com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새벽예배(화-금) 새벽 6:00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EM예배 (2부)오전 11:00
교육부예배 주일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저녁 7:00

박성호 담임목사

베이커스필드 ANC온누리교회

6700 Schirra Ct, Bakersfield, CA 93313
T. (661) 831-2262 / onnuribk.com/anc

주일예배 오전 10:40
목요일예배 오후 7:00
토요일새벽 오전 5:30

지동근 담임목사

베이커스필드 아름다운교회

4500 Buena Vista Rd, Bakersfield, CA 93311
T. (661) 472-5979

주일예배 1부 오전 8:15 (한국어)
주일예배 2부 오전 10:15 (한국어, 스페인어)
주일예배 3부 오후 12:15 (한국어, 교육부)
새벽예배(월-토) 새벽 6:00
(7175 W Oquendo Rd, Las Vegas, NV 89113)

강일진 담임목사

라스베가스 순복음교회

9525 W Maule Ave, Las Vegas, NV 89148
T. (702) 453-1223 / www.fglvchurch.com/

주일예배 1부 오전 9:45
주일예배 2부 오전 11:30
유초등부 주일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저녁 7:30
중·고등부 주일 오전 11:30 새벽예배(화-토) 새벽 6:00

임인철 담임목사

라스베가스 중앙교회

7570 Peace Way, Las Vegas, NV 89147
T. (702) 489-2999 / www.joonganglv.org

주일예배 1부 오전 11:00
주일예배 2부 오후 2:00
EM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화-토) 새벽 6:00

송삼용 담임목사

라스베가스 즐거운 제자교회

101 S Rancho Dr, Las Vegas, NV 89106
T. (702) 378-9828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교육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새벽기도회 오후 7:00
토요일새벽예배 오전 7:00 E.lvkchurch@gmail.com

이정환 담임목사

라스베가스 커뮤니티 교회
예수님의 제자되어 성령님의 열매 맺는 교회

622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T. (702) 252-0077 / lvkcc.org/lvkcc/index.php

주일예배 오전 9:00, 오전 11:00(설교 동시통역)
금요일찬양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6:00

조종철 담임목사

라스베가스 갈보리장로교회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T. (702) 579-7576 / E. drjho@hotmail.com

주일 1부 예배 11:30 AM
주일 2부 예배 1:30 PM
수요일예배 7:00 PM
새벽기도회 화-토 5:50 AM

임명진 담임목사

라스베가스 우리종은장로교회

8425 W. Windmill Ln. Las Vegas, NV 89113
T. (702)685-2212 , woorijoeunchurch.com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크리스천 비즈니스

CHRISTIAN BUSINESS

Annie Moon
Insurance Agent
License #0B51378
MEDICARE(메디케어 보험)
213-503-1669
4055 Wilshire Blvd, #321, Los Angeles, CA 90010
e-mail : 429annie@gmail.com



아이넥스 바디샵
최고의 기술과 완벽함을 추구합니다.
자동차 사고...
더 빠르고 완벽한 복원을 원하신다면
이제 아이 넥스입니다.



inex
COLLISION CENTER
Quality Body Work & Life Time Warranty
2811 Leeward Ave Los Angeles, CA 90023
E-Mail: inexcollisioncenter@gmail.com
213.383.1230
FREE ESTIMATE - TOWING

헤어컷의 명장이 되고 싶으신가요?
* 헤어컷 배워 선호하실 분(무료)클레스
* 라이선스는 있으나 기술이 없으신 분
* 빠른 시간 안에 헤어드레서가 되고 싶은 분
* 격조 있는 Hair Cut을 구사하고 싶은 미용사
문의 (213)392-2323



- 아시아미용선수권 우승
- 아시아미용가협회수석강사
- 영국 알란 Beauty College 한국강사
- 독일 슈비츠코프(Beauty College) 초대 한국강사
- 한국국가대표 심사위원 트레이너 역임

드림 미디어, 교회 음향 무료 컨설팅
✓ 좋은 소리는 예배에 은혜를 더합니다
✓ 소리는 예배당에 맞춰 세팅해야 합니다
1. 구축 서비스 2. 교회 방문 3. Solo시스템 4. 상담 및 교육
323-643-3033 **dmediacontents@gmail.com**



치질! 수술없이 시술로도 가능한가요?
치질증상으로 항문소양증, 항문과
포리뼈 통증 출혈로 앓기도 두렵고
매번 화장실 가는것도 무섭다. **각종 보험 취급**
초스피드 다이어트 1달 - 7~25 lbs · 손목 터널 증후군 침치료 가능합니다
3대째 가업 **영선한의원 213.380.7800** **LA Medical Center**
3663 W. 6th St., #308, LA, CA 90020



교통사고 전문
배배는 숙면제거와
먹으면서 재충 충고
몸 전체 부종 빠지는 약
환부름 \$70

각종모임 주문환영 (교회, 골프모임, 동호회,...)
고기, 김치만두
참살 오방떡
술빵
새우만두
떡갈비 정식
떡갈비 김밥
Cooking Mom **T. 213.378.8530**
3660 Wilshire Blvd. #120 LA, CA 90010



F1 PLUMBING
업계 최저가격
드레인 클린 \$30불 부터
213-434-8947

OUR SERVICES:

- Water Leaks & Pipe Clogs
- Drain & Sewer Cleaning
- Pipe Repair & Replacement
- Water Heaters
- Toilets, Sinks, Disposal



오상교 오픈뱅크 신임 행장 기자 간담회

"호시우보(虎視牛步)의 자세로 28년을 걸어 왔다"

오상교 오픈뱅크 신임 행장이 16일 LA 다운타운 본점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오픈뱅크를 이끌어 갈 방향과 전략에 대해 나누었다.

그는 “오픈뱅크의 강점은 SBA 대출과 상업 부동산 대출”이라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 고객분들이 하고자 하는 꿈이 있는데, 이를 이룰 수 있게 돕기 원한다고 말했다.

행장이 되기까지 밑거름이 되어준 경험이나 자질에 대해서, 오 행장은 스스로에 대해 특별한 것은 없으나, 호시우보(虎視牛步, 소처럼 신중하게 걸으면서 호랑이처럼 주신한다는 뜻)의 자세로 한 걸음 한 걸음 28년동안 성장해 왔다고 말했다.



오상교 오픈뱅크 신임 행장이 16일 LA 다운타운 본점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오픈뱅크를 이끌어갈 방향과 전략에 대해 나누었다. ©기독교일보

“많은 좋은 상사분들을 만났다. 그분들을 통해 혹독하게 일하고 배웠지만 젊을 때 고생한 것이 지금의 밑거름이 되지 않았을까.”

오 행장은 오픈뱅크의 인재영입에 대해서, 영업 능력을 중점적으로 보지만, 기본적으로 안전하고 건전한 은행을 세우겠다는 철학이 밑바탕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의 실적과 관련된 중요한 경험이나 성과에 대해, “2010년부터 2015년까지 많은 변화를 겪었다”며, “여러 프로젝트를 제안했을 때, 마다하지 않고 파고들었다. 프로젝트가 검증받고 실현되었을 때”가 기억에 남는다고 말했다.

임기 5년 동안의 계획에 관해, 오픈뱅크의 자산규모를 50억 달러

로 끌어 올리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오 행장은, 오픈뱅크가 계속해서 자녀들을 위한 재정교육을 제공하며, 오픈청지기 재단을 통해 지역 공동체를 도울 것이라 밝혔다.

“대학교 때 UCLA 어카운팅 101 교수가 밀러언어어가 되는 비법을 가르쳐 주신다며 401(k)(직장에서 제공하는 은퇴 저축 플랜)를 해야 한다. 저희 직원들에게도, 첫날 오리엔테이션 때 401(k)를 꼭 해야 하는지에 대해 설명해 준다.”

“작년에 Community Reinvestment Act (CRA)에서 오픈뱅크 감사를 실시하고, 한인 은행 중 유일하게 아웃스탠딩 점수를 줬다. 저희는 파이낸스 리더러시 교육을

하는 단체를 계속 후원하고 있다. 저도 5년 동안 ‘주니어 어치브먼트 프로그램’을 위한 발런티어로 섬겼다. 파이낸셜 리더러시 교육을 제공하는 단체에서, 저소득층 지역에 있는 고등학교 학생들을 로스 팰리스 캠퍼스로 데리고 간다. 거기서 학생들이 가상의 공간에서 자신의 아바타로, 가상의 가정을 이루어, 자녀를 키우고, 자동차 구입, 모기지를 받는 등의 과정을 시뮬레이션하며 자기 재정이 어떻게 바뀌는지 보여줬다. 재정 리더러시는 저희들이 관심이 많이 있다. 오픈청지기 재단을 통해 지원할 것이고, 은행에서도 관련 단체들과 협력할 계획이다.”

주디 한 기자

[신간] 개척, 결코 낭만이 아니다

최순환 목사, 『개척, 내가 먼저 걸어본 그 길』 출간
먼저 걸어본 사람이 들려주는, 진짜 개척 이야기

새교회(New Church) 담임 최순환 목사가 지난 8년간의 교회 개척 여정을 담은 저서 『개척, 내가 먼저 걸어본 그 길』을 출간했다.

이 책은 미주 한인사회라는 복합적인 현실 속에서 ‘맨땅’에서 교회를 세운 목회자가 겪은 현장의 이야기로 이론서가 아닌 실전 목회 매뉴얼이자 개척자의 생존기다.

최 목사는 “개척은 로맨스가 아니라 생존”이라고 말한다. 책은 ‘절대 개척은 하지 말자’고 다짐했던 저자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결국 순종하게 되는 이야기로 시작된다. 그는 “맨땅에 헤딩”이라는 표현보다 “전 재산을 알 수 없는 주식에 몰빵한 것” 같다고 개척을 회상하며, 개척의 불확실성과 고통, 그러나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계획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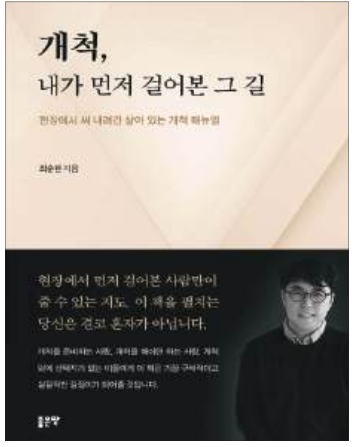
은혜를 증언한다.

책에서는 장소 확보의 어려움, 재정적 위기, 성도들의 이탈, 동역자의 배신, 그리고 팬데믹이라는 예기치 못한 현실 속에서 교회를 지켜낸 치열한 과정들이 생생히 그려

진다. 무엇보다 “교회 개척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목회자가 살아남기 위한 유일한 길이 될 수도 있다”는 메시지는 오늘날 목회를 고민하는 이들에게 깊은 도전을 준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성도는 자유롭게 오고 가야 한다’, ‘교회는 성도를 품고 파송하는 열린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저자의 철학이다. 뒷문까지 열어 둔 교회를 꿈꾸며, 상처조차 목회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성찰은 이 책이 단순한 경험담을 넘어 목회의 본질을 다시 묻는 신학적 고백임을 보여준다.

최 목사는 “개척은 맨땅에서 시작해도 끝은 하나님이 세우신다. 이 길을 준비하는 이들에게 제가 먼저 걸어본 이야기가 위로와 격려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민선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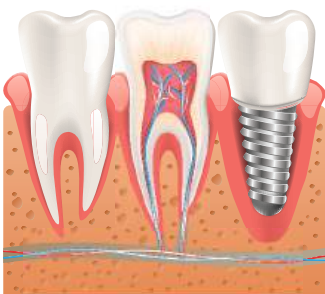
이제는 안심하자!

치아 고민·걱정 끝!

소중한 내 치아를 위한 바른 선택을 원하신다면 올림픽치과로 오세요.
임플란트, 신경치료, 크라운, 보철, 틀니 등 모든 일반치과의 진료를 최신장비를 갖추고 친절하고 꼼꼼하게 진료하는 에스더 이원장님께 안심하고 치료받으세요.
3D 디지털 임플란트 도입해 운영, 첨단 장비와 기술력으로 빠르게 치료와 회복

임플란트 치과 체크 사항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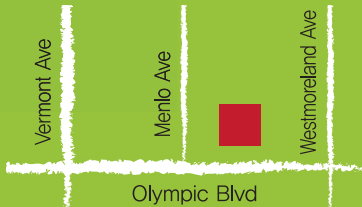
- ✓ 원장님이 초진부터 수술, 사후관리까지 진료하는가?
- ✓ 임플란트 재료는 검증 받은 제품인가, 보증서가 있는가?
- ✓ 정확한 진단을 위해, 첨단장비를 보유하고 있는가?
- ✓ 경험이 풍부하고, 수준 높은 다양한 수술 사례가 있는가?
- ✓ 엄격한 소독과 위생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에스더 이 원장

올림픽 치과
OLYMPIC DENTAL CENTER

213.385.4011
2655 W. Olympic Blvd, #206., LA, CA 90006
(Olympic + Menlo Ave. 뉴 서클 호텔 건너편)



강태광 칼럼

만끽(滿喫)과 행복 감수성



강 태 광 목사
월드쉐어USA 대표

잘 아는 얘기다. 적극적 사고방식(Positive Mental Attitude)을 주창한 노만 빈센트 필(Norman Vincent Peale) 박사가 열차 여행을 했다. 자리를 찾아 앉고 보니 맞은편에 중년 부부가 앉아 있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 그 부인이 이것저것 투덜거리며 계속 불평했다. ‘좌석이 불편하다,’ ‘시트가 지저분하다,’ ‘객실에 냄새가 지독하다,’라며 불평을 쏟아냈다.

부인이 계속 불평을 쏟아내자, 남편은 필 박사의 눈치를 보며 전전긍긍했다. 남편은 계속 아내를 달래며 목소리를 낮추라고 부탁했다. 이것을 본 필 박사는 안쓰러운 마음에 “사모님께서 불편하신 것이 많은 모양입니다.”라며 인사를 건네며 자신을 소개했다.

그러자 남편이 ‘안녕하세요! 저는 변호사이고, 제 아내는 제조업에 종사합니다.’라고

말했다. 필 박사는 갑자기 그 부인의 직업이 궁금했다. ‘변호사님! 사모님께서서 어떤 종류의 제조업에 종사하죠?’라고 물었다. 그러자 남편은 웃으며 “아내는 불평 공장 공장장입니다.”라고 대답했다.

그 변호사의 아내는 천재성이 변뜩이는 불평쟁이였다. 그녀는 시선이 닿는 곳곳에서 불평거리를 찾았다. 그래서 그녀는 항상 불행했다. 예외로 이런 불평 공장 공장장이 많다. 불평 공장장은 불행 공장장이다. 이런 사람은 스스로 불행을 만든다.

반대로 늘 감사와 만족이 있는 사람은 탁월한 행복 감수성 소유자다. 언제 어디에서나 행복의 이유를 찾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행복의 비밀은 소유가 아니라 발견이다. 현재 삶에서 행복을 발견해야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행복을 찾는 것이 행복 감수성이다. 사실 행복 감수성 개발이 인생 학교에서 가장 중요한 실력인데 우리는 행복 감수성 계발을 등한히 한다.

고교 후배 중에 육군 사관학교 생도 시절 연대장 생도를 지냈던 김대령이 있다. 훌륭한 장교로 따르는 후배가 많은 듯했다. 어느 날 그의 페이스북에 “형님! 저 00년대 연대장 나갑니다!”라는 글이 보였다. 내가 잘 아는 부대였다. 오지에 여러 여건이 어려운 부대 연대장으로 나가는 걸 알리며 하소연하는 심정이 읽혔다. 김대령은 댓글을 “만끽하거

라!”라고 달았다.

나는 김대령의 댓글이 좋았다. 만끽하라는 말이 “신세대 병사들이 주는 지휘 부담도, 어려운 부대 여건도 모두 즐겨라!”라고 들렸다. 특히 〈만끽〉이란 말이 참 좋아서 한동안 〈만끽〉이란 단어를 생각에 담았다. 그리고 삶의 스트레스와 어려움을 만끽하려고 노력했다. 만끽하며 불평을 멈췄다. 만끽하며 행복 감수성을 키웠다. 지금도 만끽하려고 노력하는 중이다.

감수성(感受性)은 외부 자극을 받아들이는 소화능력이다. 행복 감수성은 삶에 주어지는 모든 자극에서 행복을 발견하는 지혜요 통찰력이다. 행복 감수성은 모래사장에서 금을 찾듯이 삶에서 행복을 찾고 행복을 누리는 고차원의 실력이다. 행복 감수성은 시선 교정이요 마음 관리다. 불평거리만 보이면 불행하다, 감사가 보이고 마음에 만족이 담기면 행복이 가득하다.

감사일기를 쓰면서 “범사에 감사하라!”를 말씀을 다시 묵상한다. 범사에 감사하는 삶은 범사에 만끽하는 삶이다. 범사에 감사하려면 창의적이고 풍성한 감사 제목을 찾아야 한다. 범사에 감사하려면 만나는 사람, 경험하는 사건, 주어진 일들마다 감사의 이유를 발견해야 한다. 범사에 감사하며 범사를 만끽함으로 예민한 행복 감수성을 가꾸고 싶다. 더 섬세한 감사를 누리며 풍성한 행복을 누리기를 기도한다.

하늘바라기



pixabay.com/JonnyBelvedere

내 영혼이 - 김은주

내 영혼이 주님으로 인하여
힘을 얻고 기뻐하나이다
나의 가는 길이 주님으로 인하여
평탄하며 안식의 길로 가나이다
나의 인생이 주님으로 인하여
행복과 축복의 길로 가나이다

태양도 날 위해 떠오르고
바다도 날 위해 숨을 쉬고
세상도 날 위해 소리치나이다

어느 것 하나라도
주님의 명령에 거역함이 없나니
만물도 주님께 순종으로 나아감을
나의 가슴 깊이 새기나이다

복음의 소식이 만방을 향해 외쳐지니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뤄짐으로
내 영혼이 참으로 경탄하며 경배하나
이다

이훈구 칼럼

꿈 꾸는 자의 행복한 마음



이 훈 구 장로
G2G선교회 대표

어릴 적에는 이발소에 자주 가지 못하고, 주로 설이나 추석 같은 명절을 앞두고 머리를 깎았던 기억이 있다. 그러나 중·고등학교 시절에는 머리를 짧게 유지해야 했기에 거의 한 달에 한 번꼴로 이발을 했다. 대학생이 되면서는 머리를 기를 자유가 생겨, 가끔은 머리카락을 길게 기르고 바람에 휘날리며 ‘폼’을 잡던 시절도 있었다.

하지만 결혼하고 직장생활을 시작하면서부터는 한 달에 한 번씩은 이발을 하며 용모를 단정하게 유지하려 노력했다. 미국 텍사스 남부로 이민 온 이후에도 약 20년 가까이 단골 미용실에서 매달 한 번씩 머리를 다듬고 있다.

어느 날, 이발을 하기 위해 단골 미용실을 찾았을 때였다. 원장님께서 평소보다 더욱 밝은 표정으로 건강한 모습으로 반겨주셨다. 60대 후반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미용에 대한 전문성과 열정을 지닌 채 오랜 세월 미용실을 성실하게 운영하고 계셨다.

머리를 자르는 동안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던 중, 나는 그분의 취미와 꿈에 대해 듣게 되었다. 미용실 벽에는 다양한 종류의 새들이 그려진 그림이 아름답게 전시되어 있었다. 알고 보니, 원장님은 오전에는 미용실을 열지 않고 지역 커뮤니티에서 운영하는 취미 그림 교실에 다니며 그림을 그리기 벌써 2년이 넘었다고 하셨다. 오후에는 예약 손님 중심으로 미용실을 운영하고 계셨다.

그림 이야기를 나누면서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다. 전공하지는 않았지만, 단순한 취미로 시작한 그림 그리기가 이제는 수준 높은 작품으로 발전하여, 원하는 분들에게는 판매도 하고 계셨던 것이다. 가격도 매우 저렴하게 책정되어 있어 놀라웠다. 한 그림을 처음에는 8시간 정도 들여 그리셨고, 경험이 쌓이면서는 3~4시간 만에 완성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셨다.

내가 “그 시간과 정성을 생각하면 가격이 너무 싼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드리자, 원장님은 이렇게 대답하셨다. “지금은 배우는 중이니까요. 그림을 통해 이익을 남기기보다는 재료비만 건지면 돼요. 누군가가 제가 그린 그림을 기쁘게 사 간다는 것 자체가 저에게 기쁨이고 행복이에요.” 장자 자신의 그림이 더 많은 사람에게 알려져 그림의 가치가 높아진다면 그때는 가격을 조정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라며 겸손히 웃으셨다. 그 말씀 속에서 겸손하고 따뜻한 마음이 전해졌다. 이어서 하신 말씀도 인상 깊었다.

“사람을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죠. 처음부터 물질을 앞세우면 안 됩니다.” 그 말씀이 참으로 깊은 울림으로 다가왔다. 이윤을 남기기 위해 처음부터 비싸게 팔기보다는, 자신의 작품을 사 주는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그 마음이 참으로 고귀하게 느껴졌다.

그래서일까. 원장님의 자녀들 딸 셋, 아들 하나 모두 성실하고 따뜻한 인품으로 사회생활을 잘해 나가는 모습을 볼 때, 그 마음의 뿌리가 자녀들에게도 자연스럽게 이어졌음을 느낄 수 있었다. 원장님은 언젠가 자신의 그

림이 많은 이들에게 인정받기를 소망하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한다면, 언젠가는 빛을 보게 될 거예요.” 그 꿈을 가슴에 품고 매일 그림을 그리며 살아가는 원장님의 모습은 참으로 아름다워 보였다. 나는 진심으로 “정말 재능이 뛰어나십니다”라고 칭찬드리며, 그분의 꿈을 응원한다고 말씀드렸다. 그러자 원장님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번졌고, 그 미소 속에는 꿈을 향해 나아가는 생명의 에너지가 느껴졌다.

그렇다. 나이가 젊든, 다소 들었든, 꿈이 있다는 것 자체가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어 주는 이유가 된다. 젊은이는 비전을 품고 미래를 향해 힘차게 나아가야 한다. 그리고 노인이 되어도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그쳐 되는 대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 작은 꿈이라도 가슴에 품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삶을 사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이다. 꿈꾸는 자의 마음은 늘 새롭고, 매일이 기다려지는 삶이 된다. 우리 모두 각자의 적성과 재능에 맞는 취미와 소명, 그리고 작은 꿈 하나라도 가슴에 품고, 그 꿈을 향해 오늘도 몸과 마음과 영혼을 맑고 건강하게 가꾸며 살아가기를 소망한다.

2025 미주기독교 대학박람회

TALBOT
SCHOOL OF THEOLOGY
BIOLA UNIVERSITY

신입생 모집

탈봇신학교 한국어 목회학박사 학위과정
Korean Doctor of Ministry

- 세계 최고의 교수진
- 영성 형성 집중 프로그램
- 실용적인 사역 대비
- 오프라인 수업
- 미국 비자 (I-20) 발급

카카오톡 채널: "탈봇" 검색

유튜브: "탈봇신학교" 검색

Email: talbot.korean.dmin@biola.edu
13800 Biola Avenue, La Mirada, CA 90639 | Tel : 562-903-4705

미 성 대 학 교
America Evangelical University

- ABHE, ATS 정회원
- 기독교학과(BA), 목회학석사(M.Div), 상담학석사, 선교학석사, 목회학박사
- 연방정부 승인 SEVIS I-20 자체 발행
- 만수 후 미주 및 한국에서 사역 가능
- 철학박사(Ph.D)과정 신설
- 입학상담: 조성호 박사 T(626)227-3454

미래를 책임지는 미성대학교 총장: 이상훈 박사
1204 W. 163rd St.Gardena, CA 90247
Tel (323)643-0301, Fax(323)643-0302, www.aeu.edu/info@aeu.edu

for the Church
MIDWE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미드웨스턴 침례신학대학원 한국부

- 남침례교 6대 신학교(HLC & ATS 인가)
- 100% 한국어
- I-20 발급
- 저렴한 등록금과 장학 혜택

성경사역학철학박사
목회학석사
교육목회학박사
목회학박사

5001 North Oak Trafficway., Kansas City, MO 64118
Tel.(816)414-3754 Email: ks@mbts.edu

SINCE 1977

캘리포니아 프레스티지 대학교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의 새로운 이름

- 전세계 온라인으로 온 캠퍼스와 실시간 수업가능

- 1977년 설립된 이후 지켜온 선교 지향적 교육을 토대로 다양하고 폭넓은 미래지향적 교육을 추구하고자 합니다
- 최첨단 효율적인 온, 오프라인, 블렌디드 교육 플랫폼 제공
- 교정에 따라 영어, 한국어, 중국어 프로그램 (학사, 석사, 박사)
- SEVIS I-20 발행 | 연방정부 학자금 보조 | 미국연방 인가된 학교
- 홈페이지: www.ptsa.edu | 입학문의 562.926.1023 (ext 300)

15605 Carmeni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월드미션대학교
World Mission University

- ABHE, ATS 정회원
- 미국 주류 신학교 학점 인정 및 편입학 가능
- 온캠퍼스와 온라인 프로그램
- 신학, 상담학, 음악학, 간호학, 글로벌리더십 학위과정
- 유아교육, 가정사역, 비영리단체사역 수료과정

500 Shatto Pl., Los Angeles, CA 90020
Tel:(213)388-1000 Fax:(213)385-2332
www.wmu.edu admissions@wmu.edu

복 음 대 학 교
Evangelical University

- TRACS 정회원 인준
- 특 전 : Sevis I-20 발행 /선교사 장학금 및 각종 장학제도
- 성경학 학사 (B.A. in Biblical Studies)
- 목회학 석사 (Master of Divinity)
- 종교학 석사 (Master of Art in Religion)
- 목회학 박사 (Doctor of Ministry)

2660 W. Woodland Dr. #200, Anaheim, CA 92801
Tel: (714)527-0691(0692) Fax: (714)527-0693
www.evangelia.edu info@evangelia.edu

GATEWAY SEMINARY

Biblical • Missional • Global

게이트웨이신학대학원에서
한영 이중언어과정 학생을 모집합니다.
학위과정 - 목회학석사(M.Div.) & 신학석사 (M.T.S.)

상담문의: 909- 687-1649 / KEB@GS.EDU
WWW.GS.EDU Korean-English Bilingual Program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
Grace Mission University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는 대학

신학사(BA), 석사:기독교 교육학(MA CE), 선교학(MA ICS), 목회학(M.Div), 선교학 박사 (D.Miss)과정 연방정부학자금 보조, I-20, 온라인 강의, 한국어 및 영어 트랙, LA Teaching Site 운영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el: (714)625-0088(대표), 515-5885(입학상담)
이메일: admissions@gm.edu www.gm.edu

AZUSA PACIFIC SEMINARY
Transform the World with Christ

LA:오렌지 캠퍼스 M.Div, M.A, D.Min.

아주사 퍼시픽 신학대학원
입학문의 8T.(626)857-2200

글로벌침례신학교
Global Baptist Theological Institution & Seminary

미래의 하나님의 일꾼을 양성하는 요람
목회자와 교사의 사명이 다시 살아나는
Re-Vital Online Program

www.gbtlis.org
학교주소 13108 Valley View Ln, Farmers Branch, TX 75234
이메일 I aurahelio@gmail.com
전화 1 508-826-5145

FULLER
THEOLOGICAL SEMINARY

플러신학교 선교대학원 한국학부

135 N.Oakland Ave., Pasadena, CA 91182
Tel, 626-584-5574 http://korean.fuller.edu

www.itsia.edu

ITS 신학대학원
International Theological Seminary

"미국연방인가기관 ATS정회원" 2006년 허복

- MATS 선교학 석사
- Th.M 신학석사
- M.Div 목회학석사
- D.Min 목회학박사

100% 온라인 ATS인가 학위 • 온라인 수업 제공

문의(626) 653 9547 EXT.# 112/admin.kor@itsia.edu



TOP7 LIVE IN LA

미스터트롯3

추길 손빈아 김용빈 추혁진 천록담 남승민 최재명

2025. 8. 24(일) 2PM, 6:30PM

WILSHIRE EBELL THEATRE 월셔 이벨 극장

TICKET OPEN

chosunticket.com | 🔍



 ChosunDaily LA 미주조선일보LA 티켓 예매 (213)459-6800 | (213)315-5177

미스터트롯3

Top7과 떠나는 크루즈여행

8월 25일<월> ~ 29일<금> 4박 5일

손빈아 천록담 김용빈 추길 최재명 남승민 추혁진

SHOW. SHOW. SHOW. 미스터트롯 선상 갈라쇼, 멕시코 전통쇼, 탈렌트쇼

“푸짐한 경품잔치”

CARNIVAL RADIANCE

탈렌트쇼 & 가라오케쇼

멕시코 문화센터
마리아치밴드와 민속공연 관람

선상 스페셜이벤트 (오후)

미스터트롯3 프리미엄 선상 공연

다양한 경품 추첨이 있습니다. (항공권, 마사지체어, 알래스카 크루즈 등)

▶ 요금: 오션뷰 **\$1,799**
발코니 **\$1,999**

▶ 포함: 4박 5일 크루즈 비용, 세금일체(포트세, 정부세), 기항지 투어(2일) + 프라이빗쇼 관람 및 행사, 크루즈 보험
*1인당/ 2인1실 기준 *예약시 완납, 캔슬시 패널티 적용

 여행의 명문 -
ELITE TOUR

엘리트 투어

213·386·1818

745 S Oxford Ave. 1F, Los Angeles, CA 90005
www.EliteTourUS.com email: info@elitetourus.com



신성욱 칼럼

Go Do It Now!



신 성 욱 교수
아세아연합신학대학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Elisabeth Kübler-Ross)와 데이비드 케슬러(David Kessler)가 함께 집필한 『인생 수업(Life Lessons)』에 나오는 한 문장에 눈이 갔다. 아주 오랜만에, 어제에 이어 계속 읽다 보니 밑줄이 그어진 문장이 하나 보이는데, 그 옆엔 ‘중요’라는 메모도 적혀 있었다. 무려 20년 만에 다시 펼쳐서 읽는 책이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하고 싶은 일’보다는 ‘해야만 하는 일’에 자신이 얼마나 붙잡혀 사는지 알면 놀랄 것이다.”

왜 밑줄을 긋고 ‘중요’라는 메모를 남겼는지 알만 했다.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이 말은 나의 일상에 깊은 울림을 준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우리는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해야만 하는 일’을 떠올리며 하루를 시작한다. 알람 소리에 몸을 일으키며 우리는 이미 하루치의 ‘해야 할 일’ 목록을 떠올리고, 그 무게에 눌린 채 깊은숨을 내쉴다.

어릴 적 선생님이 장래 희망을 물으면 뭐라고 답했던가?

자신 있게 “화가요!”, “과학자요!”, “소설가요!”라고 말했다. 그때는 세상이 커 보였고, 시간은 충분했으며, 하고 싶은 일은 당연히 하게 될 것이라 믿었다. 그러나 자라면서 우리는 현실의 벽 앞에서 초라해진 자기 모습을 볼 때가 많았다. ‘점수, 입시, 취업, 대출, 보험, 계약서, 할부금’.... 이런 단어들이 ‘해야만 하는 일’의 이름으로 일상에 덧입혀져 왔다.

“해야만 해!”의 반복적인 삶에 감정까지 마비가 되어버렸다.

“해야 하니까 하는 거지.”

“내가 아니면 안 되잖아.”

“그게 인생이지 뭐.”

이 말들이 무표정하게 우리의 일상을 대변해 주는 메아리다. 우리는 하기 싫은 회의에 참석하고, 흥미 없는 업무를 기계처럼 처리하고, 일상적인 관계 속에서 감정을 억눌러 왔다.

그리고 어느 순간, 하고 싶었던 일들이 무엇이었는지도 잊어버린 지 오래다. 그저 ‘해야만 하니까’ 살아간다. 그것이 가족을 위한 책임이든, 사회적 위치를 지키기 위한 처세이든, ‘성공한 사람’이라는 타이틀을 유지하기 위한 경쟁이든 간에 말이다. 문제는 ‘해야만 하는 일’이 시간이 지나도 끝나지 않는다는 데 있다. 한 가지 일을 끝내면 다음 일이 기다리고 있고, 거기서 벗어나면 삶의 균형이 무너질까 두려워서 멈추질 못한다.

그렇게 하다 보면, 내 인생인데도 정작 ‘나’는 빠져 있다. 정말 두려워해야 할 것은 ‘실패’나 ‘체면’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 잊어버리는 것’이다.

‘하고 싶은 일’을 추구하는 삶은 이기적인 삶이 아니다. 오히려 그 안에 ‘내가 살아 있음’이 존재한다. 좋아하는 책을 읽고, 분주한 시간을 잊고 그림을 그리거나, 여유롭게 걸어 다니며 상상의 나래를 펼치는 것. 그런 순간에 우리는 ‘진정한 나’가 회복된다.

영혼이 숨을 쉬고, 마음이 웃고, 눈빛에 생기가 돌고, 살맛이 나는 삶 말이다.

글을 쓰다 보니 한 사람이 떠올랐다. 삼성 전자 연구원으로 그 좋은 직장생활 중에, ‘하고 싶은 일’보다는 어느덧 ‘해야만 하는 일’에 몰두하고 있는 자기의 모습에 허망함을 느끼며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백수가 되었다. 2008년 12월 31일, 아무도 모르게 사무실을 떠나며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는 진정한 나’를 찾는 그의 여정은 시작되었다.

하는 일이 없어 도서관에 갔다가 자신의 할 일을 깨닫고 3년간 도서관에 집거하다시피 머물며 하루 10~15시간, 총 1만 권 가까이 책을 읽는다. 그때 비로소 자신의 인생에 새로운 전환과 전기가 시작되어 일주일애 베스트셀러 한 권씩을 써내는 유명 작가로 거듭나게 된다. 바로 『나는 도서관에서 기적을 만났다』의 저자 김병완 작가의 얘기다. 그 책을 읽고 그의 용기가 얼마나 부럽고 존경스러웠는지 모른다.

‘하고 싶은 일’을 찾기 위해 그 좋은 직장인 ‘해야만 하는 일’을 포기했더니, 마침내 자신이 가장 행복해하는 일을 찾게 된 것이다. 그게 바로 ‘김병완이 하고 싶은 일’이었다.

우리네 삶에는 어쩔 수 없이 반드시 감당해야 할 일들이 있다.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 부모의 소원을 이뤄드리기 위해, 월급을 많이 주는 황금 직장이기엔 참된 기쁨과 만족을 얻지 못해도 해야만 하는 일들이 분명히 있다.

하지만 가끔은 ‘해야 할 일’을 조금 미뤄두고, ‘하고 싶은 일’도 누리며 사는 것도 나쁘진 않다. 잠시라도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가슴이 뛰는 일을 해보자. ‘독서, 여행, 자전거 타기, 뜨개질, 일기 쓰기, 아침 햇살 받으며 모닝커피 마시기, 맨발 걷기’ 등등. 하지만 ‘그 일 아니면 삶의 존재 목적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일이 있다면, 김병완 작가처럼 모험을 던져보라. 그 안에서 ‘내 속에 잠들어 있는 진정한 나’라는 존재를 새롭게 만날 수도 있을 것이다.

20세기 가장 위대한 설교자 중 한 사람인 하워드 서먼(Howard Thurman)이 남긴 말이다. “세상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묻지 말라. 당신을 살아있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 물어라. 그리고 그것을 하라.”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내게 가장 행복을 가져다주는 일인지 점검해 보라. 그 일이 아니라면 지금 가서 그 일을 하라. ‘Go Do It Now!’

정재우 칼럼

폭염 속에서 누린 영화와 감동의 무비캄스



정 재 우 목사
세인트하우스 펍텍

35도를 넘나드는 폭염이 이어지던 한여름,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는 필자에게는 말그대로 ‘무비캄스’였다. 부천시청 어울마당과 CGV소풍관을 오가며 3박 4일 동안 13편 영화를 보면서 함께한 시간은, 무더위마저 잊게 할 만큼 벅차고도 감동적이었다.

이번 영화제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점은, 다양한 국가의 문화와 감성이 영화라는 언어로 하나 되는 장면들을 보는 일이었다. 가족, 미래, 평화, 비폭력, 여성, AI, 전통, 종교 등 인류 보편의 주제를 담은 작품들은 단순한 오락을

넘어 삶을 돌아보게 했다.

특히 놀라웠던 것은 인공지능(AI) 장르 영화들이 첫선을 보였다는 점이다. 새로운 시도였고, 영화제의 미래지향적 방향성을 잘 보여주는 신선한 흐름이었다.

대부분의 상영작이 매진되었고, 관객석을 가득 메운 젊은 세대의 열기는 감독들과 출연진에게도 큰 감동이 된 듯했다. 한국 영화의 미래가 밝다는 확신을 주는 순간이었다. 작품 선정 기준이 궁금할 만큼, 다양한 분야에서 수준 높은 작품들이 소개되었다. 영화제의 ‘판타스틱’이라는 이름처럼, 상상력과 창의성, 모험심을 자극하는 영화들이 많아 매 작품이 신선한 충격이었다.

이 영화제를 보며 문득, 필자가 살고 있는 펍텍에도 이와 같은 국제영화제가 생기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특히 가족, 환경, 평화 같은 주제로 겨울철인 1~2월경 개최한다면 다른 영화제들과도 일정이 겹치지 않고, 시민들의 정서적 감응을 해소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민박을 원하는 외국인들을 위해 숙박 시설을 시민이 개방할 수 있도록 시 차

원의 정책적 배려가 있다면, 민간 국제교류의 장으로도 의미를 더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영화제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작품을 몇 편 소개하고 싶다.

가장 깊은 울림을 준 영화는 〈하늘나라가요〉(볼리비아)였다. 가정폭력으로 어머니를 잃은 8살 소녀가 엄마의 시신을 트럭에 싣고 ‘사막 끝에 있는 천국’을 찾아 나서는 여정은, 환상과 현실을 넘나들며 보는 이의 가슴을 먹먹하게 만든다. 아름다운 자연과 소녀의 순수함, 그리고 사랑의 체험이 감동적으로 펼쳐졌다.

〈디텍스 디텍스〉(미국)는 다중우주를 배경으로 엄마가 딸의 죽음에 대해 복수하는 이야기다. 타임머신을 타고 다중우주의 살인범을 찾아가 응징하지만, 마지막엔 가출한 소녀를 구해내며 복수를 끝낸다. 모성애가 불러온 복수극과 용서 사이에서 모성애의 깊이를 그린 수작이다.

〈너와 나의 우주〉(우크라이나)는 핵폐기물을 목성으로 운반하는 쓰레기처리 우주선의 남성과 우주 정거장에 홀로 남은 여성 우

주인 간의 로맨스 스토리이다. 지구가 폭발한 후 우주에서 살아남은 최후의 지구인이 된 두 우주인의 외로운 교제를 그린다. 우주선 고장으로 비대면 문자 대화를 통해 대화하며 서로에게 위로가 되어주는 모습은 현대인의 단절된 정서에 깊은 울림을 준다.

그 외에도 인상 깊은 작품들이 많았다. 한국 웹툰 작가 자매의 갈등과 성장을 담은 〈커미션〉(한국), 종교와 용서의 갈등을 수사극 형식으로 풀어낸 〈온리 갓 노우즈 에브리씽〉(한국), 요양원을 거부하는 어머니와 아들의 관계를 그린 〈그들의 집〉(스웨덴), 꽤 속으로 달리는 열차 안에 설치된 폭발물을 제거하는 수사극으로 스릴러 만점에 가까운 수작 〈96분〉(대만), 중국 외판 시골 동네에서 일어나는 악당과 경찰의 대결을 치열하게 그려낸 〈모래 폭풍 속에서〉(중국).

그리고 40년이 지난 지금 봐도 현대적 감성이 뒤떨어지지 않는 영화, 배우 이병헌의 대표작인 〈번지점프를 하다〉(김대승 감독) 등, 필자가 본 영화들은 다채로운 주제와 장르가 끊임없이 새로운 감동을 선사했다.



심성통운

SAMSUNG SHIPPING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

저희 "심성통운"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한번 클릭으로 이사의 모든 것을 해결 www.samsungmoving.com

이사의 명가(名家)

귀국이사

- 집안 내에서 손님 입회하에 한국식 포장 서비스
- 포장 재료 무료 제공
- 한국에서 완벽한 가구 set up 과 쓰레기 수거

시내이사

- 한국식 포장 이사 전문 (한국인)
- 피아노, 돌침대 취급 전문
- 포장 box 대여 및 판매
- 사무실, 공장 이사
- 창고 보관 가능

자동차운송

- 미 전지역 모든 승용차 운송 (7~10일 소요)
- 한국 및 동남아 자동차 운송 전문
- 초 저가 차량 운송

가주 삼성 통운(주)

타주이사

- 무료 창고 보관 1개월 서비스
- 미국 내 전지역 정기 운행
- 샌프란 시스코, 베가스, 피닉스 당일 출발
- 씨애틀, 달라스,아틀란타, 뉴저지 월2~3회 정기 운행

해외이사

- 하와이, 괌, 알래스카
- 중국, 일본, 남미
- 캐나다(밴쿠버, 토론토)
- 전 세계 선교사 이사 화물 전문

문의 1-877-580-2424

SAMSUNG SHIPPING, INC.
samsungmoving@gmail.com

- 주정부 허가: MTR-190586
- US - DOT: 1847208 ICC - MC: 669029
- Fully Insured & Bonded

LA (323) 582-2424

OC (714) 777-7799

서울 (310) 538-3333

광복 80주년

독립운동가 유일한 박사가 설립한
민족기업 유한양행의 유한건강생활
한국 본사 지원으로 전제품 100세트
하나사면 하나 더 특별세일!!



유한건강생활

Buy 1 Get 1 FREE



유한양행 전용농장의
최상급 통녹용과 통홍삼
활력증진 한방 성분
천수단
2개 ~~\$720~~ → \$360



유한양행 전용농장의
최상급 통녹용과
통홍삼 진액 200g
전녹용홍삼 200
2개 ~~\$720~~ → \$360



유한양행 전용농장의
통녹용과 통홍삼 진액!
휴대와 복용이 간편한
전녹용홍삼 스틱
2개 ~~\$420~~ → \$210



눈의 피로와 노화 방지
효과빠른 눈건강 영양 개선제
루테인 아스타잔틴
2개 ~~\$130~~ → \$65



브라질 까마귀 열매와
아세로라로 만든 천연 항산화제
천연 비타민C
2개 ~~\$130~~ → \$65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3중
소화 기능에 밀가루 글루텐과
우유 카제인까지 소화시키는
글루텐컷 카무트 효소
2개 ~~\$120~~ → \$60



혈중 중성지방 개선과
혈액순환 개선
100% 식물성, 흡수율 높은
r-TG 오메가3
2개 ~~\$140~~ → \$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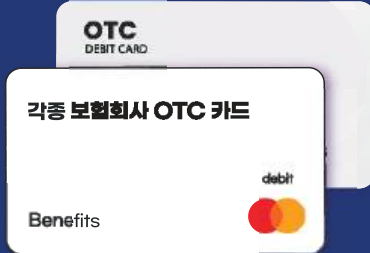
활력성분 비타민 B 6종과
미네랄 3종을 하나로
멀티비타민 & 미네랄
2개 ~~\$140~~ → \$70



식사후 혈당 스파이크 억제와
포도당이 지방으로
바뀌는 것을 막아주는
혈당컷 다이어트
2개 ~~\$80~~ → \$40



식후 혈당상승 억제와
정상적인 면역기능 케어
혈당 & 면역케어
2개 ~~\$80~~ → \$40



각종 건강보험 OTC 카드 환영



셀리온 화장품

up to 30% 할인



일곱가지 세포성장인자
Growth Factor에 NMN 과
PDRN 성분을 더한 최첨단 피부활성 앰플
GF 7+ 앰플
\$280 → \$252



일곱가지 세포성장인자
Growth Factor 에 NMN 성분을
더한 최첨단 피부활성 세럼
GF 7+ 세럼
\$120 → \$108



일곱가지 세포성장인자
Growth Factor 에 NMN 까지.
강력한 보습 진정 성분 크림
GF 7+ 크림
\$180 → \$162



앰플+세럼 2종 세트
\$400 → \$320



세럼+크림 2종 세트
\$300 → \$240



**앰플+세럼+크림
3종 세트**
\$580 → \$406



피부 깊숙이 모공 세척과
보습을 통해 맑고 투명한 피부로
되돌리는 오일 세안제
GF 7+ 페이스 오일솜
\$60 → \$54



목련꽃 추출 성분과 맥주효모 그리고
비오틴 성분으로 깨끗한 두피.
풍성한 모발 관리
헤어샴푸
\$40 → \$36



목련꽃 추출 성분과 오일 성분으로
건조한 피부개선과 건강하고
매끈한 피부 관리
바디워시
\$40 → \$36



병풀 추출물과 목련꽃 추출 성분, 다양한
피부 영양성분의 세럼으로 끈적임이
전혀없는 매끈하고 건강한 피부관리
바디세럼
\$60 → \$54



젊고 건강한 피부로 가꾸어주는
유정란 배반엽 다능성 스템셀
**테트라 앰솔루트
トライアル 키트 (앰플+세럼)**
\$60 → \$54



순초약방 3종 세트
(퀵 수딩 젤+울인원 크림+탐투토 워시)
\$85 → \$60

L.A.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 254호
(213) 738-1188

부ENA팩 소스몰 1층 E-115 (우리은행 앞)
(714) 523-8100

[크리스찬북뉴스 서평] 모든 그리스도인은 부르심 받은 사역자다

직장과 학교, 일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의 부르심



너의 부르심을 보라

고든 D. 피 | 노종문 역
성서유니온 | 136쪽
12,000원

저명한 신약학자인 저자는 바울 서신의 문맥과 메시지를 주의 깊게 살피면서 가정, 직장,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어떻게 구현되는지 조명한다

나아가 ‘소명’은 직업 또는 교회 사역으로만 국한되지 않는, 모든 일상 속에서 급진적인 하나님 나라의 반전을 일으키는 사명임을 일깨운다. 다양한 영역에서 일상의 사역에 종사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원숙한 바울 신학자가 남긴 가르침을 통해 도전과 격려를 받을 것이다

종교개혁은 성직만이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일로 치우쳐 생각한 중세의 산물을 성경의 관점으로 바꾸는 일에도 획기적 개혁을 일으켰다.

하지만 오늘날에도 고든 D. 피 같은 학자가 <너의 부르심을 보라>라는 책으로 ‘그리스도인의 소명, 일, 사역에 대한 바울의 이해’를 설명하려 애쓰는 것은, 여전히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이 하는 일을 소명의 일부로 여기지 않고 소명과 아무런 상관 없이 먹고 살기 위해 하는 일 정도로 취급하고 있다는 현실을 반영한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지내라”는 기본 원칙을 제시한다. 독신이면 독신으로, 기혼이면 기혼으로, 재혼을 할 수 있으면 주 안에서 하고, 믿지 않는 배우자가 갈라서고 싶어하면 갈릴 수 있지만, 결론적으로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고 권면한다.

무슨 말인가?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 결혼 여부나 하는 일에 제약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고든 피는 “이 부르심을 살아 내는 삶이 모든 상황에서 가능하다는 사실을 보여주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40쪽). 여전히 사역을 교회에서 목사 등 직분을 가진 자만이 영적인 일에 종사하는 것으로 여기거나, 교회에서 공적으로 진행되는 종교적 봉사와 섬김에 참여하는 것 정도로 이해하는 사람이 많다.

그러나 저자 고든 피는 고린도전서 12장과 14장의 은사를 설명하면서, 결론적으로 “새로워진 마음으로 자신의 삶을 세상을 향한 섬김에 내어 줌으로써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사역자(124쪽)”라고 선언한다.

2002년 고든 피가 리젠트 칼리지 목회자 콘퍼런스에서 강의한 내용을 정리하여 출간된 <너의 부르심을 보라>(성서유니온, 2025)는 지금도 우리에게 꼭 필요한 성경의 시각을 제공한다. 일터에서 하나님의

사역과 아무런 상관없는 일을 하고 있다는 착각으로 무기력하고 무의미하게 일상을 허비하는 이들에게, 모든 일터가 하나님이 부르신 곳이고 모든 일이 하나님을 위한 사역임을 상기시킨다.

고든 피는 신학자들과 목회자들 사이에서 설명이 필요 없는 사람이다. 바울 신학 분야에서 세계적 명성이 있고, 휘튼과 고든콘웰, 리젠트 칼리지 등에서 학생들을 가르친 학자이자 교수다. 부제가 말해주듯이 책은 ‘바울의 이해’를 조명한다. 바울의 개인적 이해가 아니라 성령의 영감을 받아 바울이 기록한 하나님의 뜻이라 말하는 것이 더 정확하다.

물론 고든 피는 바울이 당시 문화와 시대 배경에서 어떤 의미로 본문을 기록했는지 관심을 가지고 설명한다. 그리고 그것이 단지 그 시대, 그 문화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일반 원칙을 제공한다고 믿는다.

고든 피는 성경 주해를 가르치는 선생으로서, 독자에게 어떻게 성경의 본래 의미를 오늘날 완전히 다른 배경에서 이해하고 적용할 것인지 정확하고 합당하게 제시한다. 바울의 이해가 우리의 이해가 되도록 돕는다.

신학교에 들어가기 전, 직장인의 삶을 조금이라도 경험해 봐야 성도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다며 교회는 직장 생활을 하도록 권면했고, 필자는 2년 정도 영업직에서 일하면서 일터에서 경험하는 고충과 인간관계의 어려움을 제대로 경험했다.

아침 일찍 출근하여 밤늦게 퇴근하고, 주말이 보장되지 않는 매일 쳇바퀴처럼 반복되는 일상에서 일터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사역지라고 생각하는 것은 대단한 노력이 필요한 도전이었고 생각의 전환이 수시로 일어나야 하는 과제였다.

종종 선교사를 만나면 그들 또한 마음을 새롭게 하는 훈련을 수시로 해야 한다고 고백한다. 수년간 선교지에 있으면서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일까?’라는 생



▲ⓒ픽사베이

각이 들기 때문이다. 교회 안에서 모두가 인정하는 ‘부르심’을 받아서 모두가 ‘사역’이라고 말하는 일을 하고 있어도 그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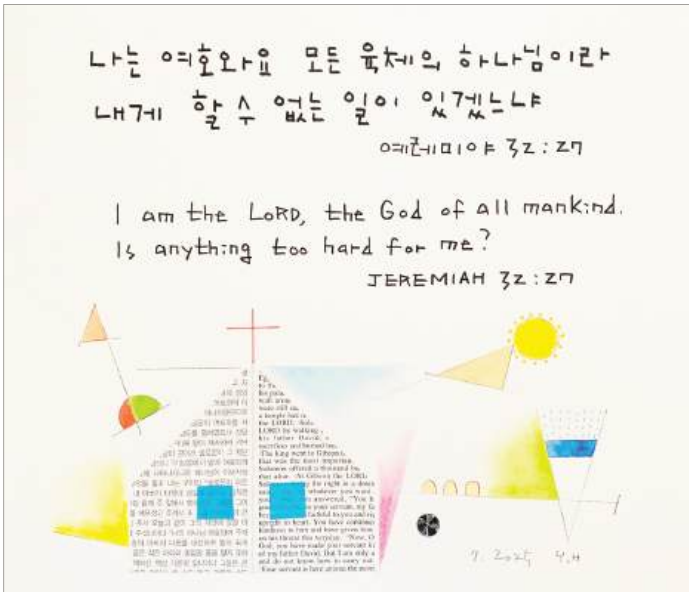
고든 피가 이 강연을 목회자들을 위해 했다는 것이 의미심장하다. 목회자는 성도에게 이 사실을 일깨워주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매주 강단에서 성도들을 위한 말씀을 선포할 때,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 복음의 능력과 은혜가 충만한 설교를 전달하면서, 그 말씀의 능력이 성도들이 흘러져 일하는 그곳에서 그들의 부르심에 충성하는 모습으로 하나님

의 영광을 위한 사역에 충성하겠다는 결단으로 이어지기를 간절히 바랐던 것이 아닐까.

개인적으로 고든 피의 책은 학구적 성격이 강하다. 그래서 이 책 주제가 흥미롭다. 독자는 저자의 설명을 통해 성경 본문에 관한 유익한 정보를 많이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일과 소명, 사역에 관한 바울의 이해를 제대로 알아,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선입견을 버리고, 개인의 삶과 직장에서의 삶을 개혁하는 데 유익을 얻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조정의
크리스찬북뉴스 편집인

■ 금주의 말씀묵상 | 김영희 권사



龍谷山

모임은 “용수산”
고품격 한정식 코스 요리와
다양한 일품요리 전문 용수산

예약 문의

213.388.3042

950 S. 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6

집안의 대를 이어 나가는 마음으로
고객에게 최선을 다합니다!

할머니 손 맛 그대로!
48시간동안 우려낸 진한 국물 맛!
최고급 고기만을 엄선!

송영 **통큰** 설렁탕

단체주문 환영

T.(213)277-1339

2717 W Olympic Blvd. #108 LA, CA 90006(구) 베버리순두부 자리

담임목사 **청빙!**

창립 40주년을 맞는 미국 동부 뉴저지 파라머스에 위치한 PCUSA 소속 참빛장로교회는 몸되신 주님의 교회를 섬기실 4대 담임 목사를 청빙합니다

■ 자격요건

- 정규 신학대학원 졸업하고 목사 안수를 받으신 분
- PCUSA 가입에 결격 사유 없는 분
- 목회 5년 이상 경험 있으신 분 (부목사 포함)
- 한국어/영어로 소통 가능하신 분
- 미국 내 합법적으로 취업에 결격 사유가 없으신 분

■ 제출서류

- 이력서:CLC PDF 추천
(영문) <https://pcusa.org/resource/clc-personal-discernment-form>
(한글) <https://pcusa.org/ko/resource/gaein-sebu-somyeong-sigbyeol-peulopil>
- 본인 및 가족소개서 (목회경력, 가족사진 포함)
- 목회비전 1부 (신앙간증문, 목회동기 및 목회철학)
- 학위증명서 (학부, 신학대학원) 및 목사 안수 증명서
- 2명의 추천인 연락처 (전화번호, 이메일)
- 최근 1년 내 설교영상 (2편 링크)

■ 접수마감 8월 15일까지

■ 참고사항

- 1. 제출된 서류는 청빙심사에만 사용되고 비밀이 보장됩니다. 청빙 절차 마치는 즉시 폐기됩니다.
- 2. 제출된 서류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3. 청빙 결과는 개별통지되며, 전화 문의는 받지 않습니다.

■ 제출처 E-mail: pnc.truelight@gmail.com

참빛교회 청빙위원회

박욱주 박사의 **브리콜라주 인 더 무비** <킹 오브 킹스> (1)

<킹 오브 킹스>, 기독교 콘텐츠 제작의 모범

신앙적 작품 남기려 최선 다해
최고 기술력과 터빙 배우 참여
한국 작품 사상 북미 최다 관람
기독교 예술인들, 이 영화처럼
성경과 그리스도 전하는 작품
남기려 한다면 좋은 결실 나와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그린 영화 가운데 가장 유명한 작품이라면, 프랑코 제피렐리 감독(Franco Zeffirelli)의 <나사렛 예수(Jesus of Nazareth, 1977)>를 떠올릴 이들이 많을 것이다. 이 작품은 원래 영화관 개봉작은 아니었고, 이탈리아 TV 미니시리즈로 제작된 것이다. 그런 까닭에 러닝타임이 매우 길다(382분). 덕분에 성경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매우 자세하게 묘사했다.

캐스팅도 화려하다. 당대 최고 연기자들이 한꺼번에 등장하는 작품이다. 예수 그리스도 역 로버트 파웰(Robert Powell)은 비교적 인지도가 떨어져도 모친 마리아 역 올리비아 핫세(Olivia Hussey, <로미오와 줄리엣>의 줄리엣 역), 백부장 역 어니스트 보그나인(Ernest Borgnine, <에어울프> 시리즈 부조종사 산티니 역), 발타자르 역 제임스 얼 존스(James Earl Jones, <스타워즈> 시리즈 다스베이더 역), 대제사장 가야바 역 앤서니 퀸(Anthony Quinn, <노틀담의 꼽추> 콰지모도 역), 서기관 제라 역 이안 홀름(Ian Holm, <반지의 제왕> 빌보 배긴스 역) 같은 대배우들이 한 작품에 동시에 출연한다. 당연히 연기 수준은 최고라고밖에 말할 수 없다.

그 후 기억에 남는 그리스도에 관한 영화로 멜 깁슨 감독(Mel Gibson)의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The Passion of the Christ, 2004)>를 떠올릴 수 있겠으나, 이 작품은 그리스도의 생애 전체가 아닌 십자가 상의 죽음부터 부활까지 내용만 다루고 있다. 하지만 이 작품도 최고 수준의 연기력을 갖춘 배우들이 등장해서 극을 이끈다.

물론 성경 고증을 충실히 하기 위해 작품

전체를 아랍어와 라틴어로 연기한지라 할리우드 유명 배우들이 많이 등장하지는 않지만, 이탈리아 유명 배우들이 대거 참여해 뛰어난 연기력을 선보인다.

<나사렛 예수>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는 공통점이 하나 있다. 일단 배우들이 자신의 연기 인생을 모두 걸고 연기에 임한다. 그만큼 복음서 내용이 서구권 배우들에게는 장엄하고 숭고하며 초월적인 감흥을 주기 때문일 것이다. '예수와 주변인의 생애를 보여 주려면 보통 수준의 연기력과 열정 갖고는 도전조차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할 만큼 그 무게감이 대단하다는 뜻이다.

이런 부담감은 동양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예를 들어 불교의 창시자 석가모니의 삶을 영화로 그려낸다고 하면, 배우들을 결코 아무나 선정하지는 않을 것이다. 감독 입장에서는 최고의 연기력을 갖췄으면서 사생활 부분에서도 큰 구설수가 없는 배우들을 선정할 것이 분명하다.

지난 4월 미국에서 개봉했고 오는 7월 16일 국내에서 개봉하는 <킹 오브 킹스>(The King of Kings, 2025)>도, 방금 소개한 두 작품처럼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그려낸다.

다만 작품의 형태와 시청 대상이 조금 다르다. 애니메이션으로 제작됐고, 주로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삼는다. 그렇지만 작품이 전하는 메시지의 무게감은 크게 떨어지지 않는다. 성경의 기사들을 되도록 있는 그대로 영상으로 펼쳐내려 노력했다. 그리고 애니메이션 형식으로 제작된 점이 오히려 서사의 초월적 분위기 연출에 큰 도움을 준다.

이 작품은 한국의 VFX(시각효과) 전문업체 모팩스튜디오가 최초로 자체 제작한 애니메이션이다. 이 회사 대표이자 작품 연출을 총괄 지휘한 장성호 감독은 국내 VFX 부문 최고 전문가 가운데 한 사람으로 인정받고 있다. 그는 삼일교회 집사로 봉사하는 기독교인으로서 선교 효과와 흥행 성적 모두를 목표로 본 작품을 제작했다고 여러 인터뷰를 통해 밝힌 바 있다.



▲장편 애니메이션 <킹 오브 킹스>는 영국의 대문호 찰스 디킨스의 저서 <우리 주님의 생애>를 원전으로 삼는 복음서 영화다.

그런 그의 바람은 실제로 이뤄졌다. 이 작품은 지난 4월 개봉 후 북미지역 박스오피스 최고 2위까지 올라갔고, 지금까지 한국에서 제작된 영화와 애니메이션 전체를 통틀어 북미 지역에서 가장 많은 관람객 매출을 올린 작품이 됐다. <킹 오브 킹스> 전까지 북미 지역에 수출된 국산 영화 중 가장 큰 수익을 올렸던 것은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2019, 약 777억 원)이다.

<킹 오브 킹스>는 제작비 2,500만 달러(약 360억 원)에 7월까지 북미 박스오피스 총액 6천만 달러(약 820억 원)를 기록했다. 손익분기점이 약 500억 원 정도로 추정되므로, 이미 300억 원 이상의 순수익을 거둬들인 셈이다. 여기에 더해 국내 개봉 수익이나 부가판권시장 수익(DVD, 스트리밍 서비스 판매 등)도 예상되므로, 영화와 관련된 수익은 지금보다 더욱 커질 것이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이 작품 역시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전반을 그려낸 영화다 보니, 애니메이션이라도 목소리 연기를 맡은 배우들의 면면이 화려하기 그지없다.

찰스 디킨스 역 케네스 브래너(Kenneth Branagh, <프랑켄슈타인> 빅터 프랑켄슈타인, <해리 포터> 시리즈 길더로이 록하트 역), 캐서린 디킨스 역 우마 서먼(Uma Thurman, <펄프 픽션> 미아 웰레스, <킬빌> 베라트릭스 키도 역), 예수 그리스도 역 오스카 아이작(Oscar Isaac, <스타워즈> 시퀼 트릴로지 포 다메론, <듕> 시리즈 레토 아틀레이드 1세 역), 헤롯 대왕 역 마크 해밀(Mark Hamill, <스타워즈> 시리즈 루크 스카이워커 역), 본디오 빌라도 역 피어스 브로스난(Pierce Brosnan, <007> 시리즈 5대 제임스 본드 역) 등이 목소리 연기를 맡았다.

이 장편 애니메이션에는 원작이 따로 존재한다. 영국의 대문호 찰스 디킨스의 <우리 주님의 생애>(The Life of Our Lord)>라는 작품이다. 디킨스가 어린 자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가르쳐 주기 위해 쓴 글로, 원래 출판할 생각은 없었다고 한다. 그런

이유로 이 작품은 디킨스가 사망한 지 50년 넘게 지난 1934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세간에 공개됐다.

디킨스는 생전 기독교 신앙인으로서 정체를 갖고 있었다. 그는 영국국교회 가정에서 성장했고, 한때 유니테리언 교회(계몽주의 정신에 따라 삼위일체 교리를 부정하고 만인구원설을 주장한 기독교 교파)에 출석했다가, 장년기 이후 다시 영국국교회 소속 신자로 살아간 것으로 알려져 있다.

종합해 보자면, <킹 오브 킹스>라는 작품은 대문호 디킨스의 작품을 원본 삼아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그려내며, 최고 수준의 VFX 기술을 동원해 영상미를 살렸고, 역시 최고 수준의 배우들을 기용해 목소리 연기를 맡겼다.

게다가 복음서 내용을 충실하게 전달하기 위해 시나리오 작업 단계부터 삼일교회 송태근 담임목사와 종신대 교수진의 자문을 받았고, 영어 대사 또한 신학적으로 충실하게 기술하려고 예일대 신학과 교수들의 자문을 받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연히 이 작품은 역대 가장 뛰어난 복음서 영화만큼이나 출중한 작품성을 갖췄고, 덕분에 북미에서 자라나는 세대를 향한 선교 목표는 물론이거니와 큰 흥행 성적까지 거두는 성과를 남겼다.

<킹 오브 킹스>는 높은 평가를 받기에 부족함 없는 작품이다. 그리스도의 생애와 사역을 알리려고 감독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기술력과 자원을 쏟아부은 작품이다. 장성호 감독은 지난 10년 동안 작품 제작에 필요한 투자를 받는 데 막대한 어려움을 겪었다고 인터뷰를 통해 소회를 밝힌 바 있다. 심지어 투자비 가운데 90억 원 정도는 사비로 충당했다고 한다.

하지만 장성호 감독은 마치 전근대 유럽 독실한 기독교인 화가나 작곡가처럼, 예술인으로서 신앙의 작품을 남긴다는 정신으로 끝까지 이 애니메이션 제작에 힘을 쏟았다. 이는 오늘날 기독교 콘텐츠 제작의 훌륭한 모범으로 남기에 부족함이 없어 보인다.



▲애니메이션으로 제작된 복음서 영화 <킹 오브 킹스>는 서사의 초월적 분위기 연출에 큰 강점을 보이는 작품이다. 장성호 감독의 신앙적 작품, 선교 목표와 흥행 성공 모두 달성



Southwest's leading provider of quality
Desert Honey
since 1945!

We offer a wide variety of 100% pure and natural Arizona honey.

자연의 정작함, 건강을 선물하세요

미국 프리미엄 허니 브랜드—

CROCKETT HONEY

아리조나 사막의 청정 자연이 빚어낸 세 가지 특별한 꿀이 건강과 품격을 전합니다.
한국 방문 시, 사랑하는 가족과 지인에게 전하는 최고의 선물!

꿀·꽃가루·로열젤리의 황금 조합

자연이 준 면역력, 에너지, 항산화 효과를 그대로 담았습니다!!!



Honey 3lbs
\$25+tax



Bee Pollen
\$45+tax



Royal Jelly
\$25+tax

1 **Desert Blossom Mesquite Honey**
사막의 야생화와 메스키토 꽃에서 채밀된
부드럽고 향기로운 맛! 풍부한 항산화 성분과
미네랄이 가득한 천연 꿀

2 **Crockett Honey (Original)**
가장 순수한 꿀의 기본! 건강한 단맛과
자연 그대로의 영양을 담은 전통의 맛!
차, 토스트, 요리에도 다양하게 활용 가능

3 **Crockett Honey with Royal Jelly**
꿀 속의 황제, 로열젤리를 더한 프리미엄 건강식품!
면역력 강화와 피로 회복에 탁월한 영양 강화 꿀!
특별한 분을 위한 귀한 선물로 안성맞춤

(Pick up Only)
전화 예약주문 **213-434-1170** prozusa1@gmail.com Pick up 장소: 3055 Wilshire Blvd. #480 LA, CA 90010

‘교회 이탈 의향’ 청년 3명 중 2명, 장년과 예배… “또래 활동 안 해”

교회를 떠날 의향이 있는 청년들 3명 중 2명 가까이가 장년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회 내 청년 공동체에서 활동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목회데이터연구소(목데연)는 예장 합동(총회장 김중혁 목사) 총회 정책연구소 의뢰로 지난 4월 28일부터 5월 7일까지 진행한 ‘교회 이탈 청년 조사’의 주요 결과를 22일 소개했다. 이 조사는 만 19~39세의 최근 5년 내 교회 이탈 미혼 청년 300명과 만 19~39세의 교회 이탈 의향이 있는 미혼 청년 2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교회 이탈 청년’이 과거에 주로 드렸던 주일예배는 ‘장년예배’가 65%, ‘부서예배’(청년부, 싱글부서 등)는 35%에 그쳤다. 현재 교회 출석 중인 ‘이탈 의향 청년’ 역시 3명 중 2명 가까이(63%)가 장년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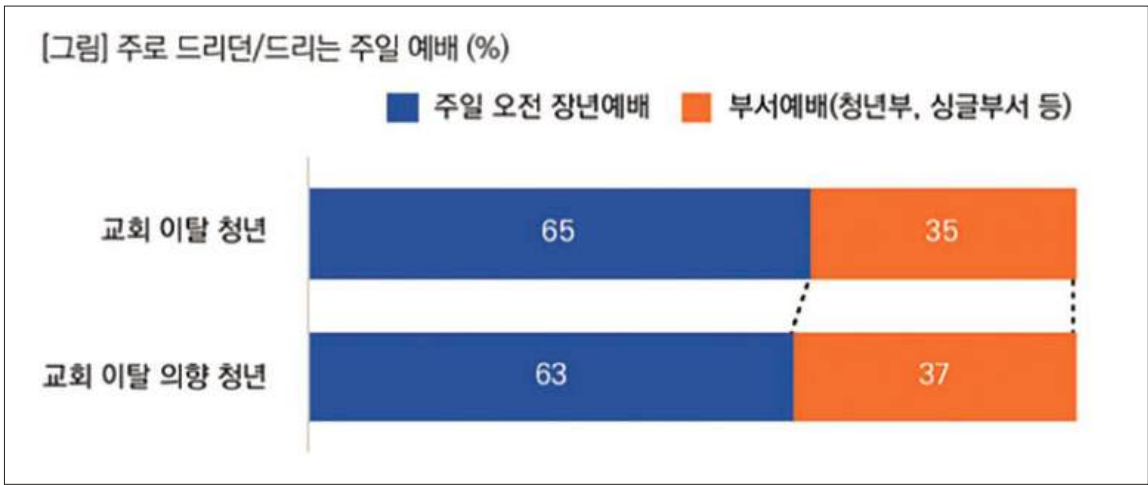
목데연은 “이 조사 결과는 예배만 드리고 소속 공동체 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청년층이 상당함을 암시하는데, 이들이 1차적으로 교회를 이탈할 가능성이 큰 그룹임을 시사한다”며 “따라서 교회는 청년들이 소속감과 교제의 기쁨을 누리고 신앙적 도전을 받을 수 있도록 장년예배 속에 숨어 있

는 청년들을 청년 공동체로 이끄는 유인 전략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교회 이탈 및 의향 청년의 모태신앙 비율은 ‘이탈 청년’은 20%인 반면 ‘이탈 의향 청년’은 63%로 큰 차이를 보였다. 목데연은 “전반적으로 ‘교회 이탈 의향 청년’이 ‘교회 이탈 청년’보다 가족 내 ‘기독교인’ 비율이 크게 높은 특징을 보였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는 가족의 기독교적 배경, 특히 부모의 신앙이 청년의 교회 이탈을 억제하는 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또 다른 지표라 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부모가 직분자 일수록 자녀의 교회 이탈 가능성 역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탈 의향 청년들에게 아직 교회를 떠나지 않은 이유(1+2순위)를 질문했을 때도 ‘가족(부모 등)과의 관계 때문’을 가장 높게 꼽았다. 이어 ‘여전히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32%, ‘교회를 떠나야 할 명확한 이유를 아직 못 느껴서’ 21% 등의 순이었다. 목데연은 “가족 특히 부모 요인이 청년의 교회 이탈을 늦추는 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했다.

교회 이탈 청년은 신앙생활의 이유로 ‘성도들과의 친교’(31%)를 가장 많이 꼽았고, 이어 ‘가족의 권유’



©목회데이터연구소

25%, ‘마음의 평안’ 24% 순이었다. 반면, 교회 이탈 의향 청년은 ‘가족의 권유’(43%)가 단연 1위로 나타났다.

목데연은 “앞서 살펴본 ‘가족 구성원의 종교’, ‘부모님의 직분’과 마찬가지로, 교회 이탈 의향 청년에게 ‘가족’은 신앙생활을 유지하게 하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고 했다.

출석교회에 신앙 소그룹이 있다고 응답한 교회 이탈(의향) 청년들을 대상으로 소그룹 참석 정도를 물은 결과, ‘정기적 참석’ 비율은 교회 이탈 청년 29%, 교회 이탈 의향 청년

18%로 나타났다. 이는 교회 일반 청년의 소그룹 정기적 참석률 36%(목데연, 한국교회 진단 리포트(친교), 2025.02.)와 비교해 절반 수준에 그치는 수치라고 목데연은 전했다.

목데연은 또 “주목할 점은 ‘교회를 이미 이탈한 청년’의 정기 참석률이 아직 교회를 다니는 ‘이탈 의향 청년’보다 오히려 더 높게 나타난 것”이라며 “이는 신앙생활의 이유와 연결해 해석할 수 있다”고 했다.

즉 “교회 이탈 청년은 친교, 교회 이탈 의향 청년은 가족의 권유가 가장 큰 신앙의 동기였던 것에서 교회

이탈 청년이 더 참석률이 높은 이유를 예상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청년의 교회 이탈 요인은 △주일에 쉬고 싶어서 △종교적 회의감 △지나친 헌신 요구 △어른들의 모습·비민주적 의사소통 △목회자의 언행 불일치 △끼리끼리 문화 등이 꼽혔다.

또 교회를 떠나려는 마음을 가진 때부터 실제로 교회를 떠나기까지 걸린 평균 시간은 2.1년으로 나타났으며, 교회 이탈 후 60%는 무종교인 또는 타종교로 전환됐다.

김진영 기자

英 교회의 ‘조용한 부흥’ … 좀 더 지켜봐야



최종상 목사(맨 왼쪽에서 네 번째)가 자신이 담임하는 영국교회 교인들과 함께 찍은 사진. ©최종상 목사 제공

영국성서공회는 지난 4월 청년층 중심의 교회 성장 현상을 보고하며 이를 ‘조용한 부흥’이라 명명했다. 이에 따르면, 18~24세 청년의 월 1회 이상 교회 출석률이 2018년 4%에서 2023년 16%로 4배 증가했다. 다만 영국 현지 선교사 최종상 목사는 “다만 이 현상이 지속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며 신중론을 펼쳤다. 최 목사는 「

마울로부터(마울의 흔적이 전해옴 메시지)」의 저자다. 다음은 그와의 일문일답이다.

-영국의 ‘조용한 부흥’에 대해 어떻게 보는가?

“통계의 오류일 수 있다. 설문문의 질문은 매주 1회가 아닌 월 1회 교회 출석을 물었다. 이것만으로 그 사람이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신자라고 보기엔 어려울

수 있다. 저의 체감상 영국 젊은이들의 교회 출석률은 그다지 높지 않은 상황이다. 통계대로 영국 부흥이 임하길 바라고 기도하고 있지만, 좀 더 지켜봐야 한다. 눈에 보이는 변화는 아직 없는 상황이다. 실상은 영국 전역에서 교회가 문을 닫고 있다. ‘조용한 부흥’ 현상이 현재 영국교회의 전체 그림을 대변하는지는 의문이다. 부흥은 한 단체의 성장이나 일시적 이벤트가 아닌 지속성과 전파성을 담보해야 한다. ‘조용한 부흥’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 두고봐야 한다.”

-영국 전역에서 교회가 문을 닫고 있는 이유는?

“고령화 및 청년 세대들의 교회 이탈이 가속화됐기 때문이다.”

-청년 세대들의 교회 이탈 가속화 이유는?

“부모 세대의 신앙 전수 실패에 있다고 본다. 또 다른 요인으로 영국은 전도에 대해 부정적인 문화가 있다. 축구 등 유흥 문화도 청년들의 교회 이탈의 한 요인이기도 하다.”

-영국교회의 쇠락을 이끈 독특한 현상이나 문화가 있다면?

“앞서 말했듯이 첫째, 영국교회는 전도를 잘 안 한다. 영국에서 절대 얘기하지 않는 두 가지가 있는데, 연봉 액수와 종교다. 둘째 영국 목회자들의 현실 안주다. 성공회, 감리교 등 영국의 전통 교단들은 소수 목회자만 뽑는다. 대신 그들에 대해 평생 재정적 안정을 보장한다. 은퇴 이후 연금도 보장한다. 지난 2022년 영국 성공회 헌금 총액의 70%가 은퇴 목회자들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데 사용됐다고 한다. 그래서 이러한 비용을 충당하고자 영국교회들은 역설적으로 비어있는 예배당을 팔고 있다고 한다. 이로 인해 목회의 공무원화 측면이 강하다. 제가 담임하는 영국교회의 교인들도 제 목회 후임자로 영국인 목회자보다 한국 목회자를 원한다고 말한다. 왜냐면 영국 목회자를 초빙하면 교인 심방 등 목회보다 개인 시간을 보내는 데 집중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한

국 목회자들이 목회에서 사명감을 지니고 더 열정적이라고 인식하는 것 같다. 셋째 신학의 자유주의화다. ‘부활이 없다’, ‘마울은 실존 인물이 아니다’ 등 이런 해석들이 영국교회 전반에 퍼져가면서 교회 쇠락이 가속화된 측면이 강하다.”

-영국에선 전도가 불법 행위인가?

“저는 2016년부터 정기적으로 시내 중심가에 가서 마이크를 노방 전도를 해왔다. 그걸 보면서 영국 목회자들은 지레 겁을 먹는다. 저는 그들에게 ‘미리 허가는 받을 필요가 없고 문제가 생기면 그때 책임지겠다’고 안심시킨다. 지금까지 전도에서 문제가 있는 경우가 없었다. 스케치 보드에 그림을 그리면서 재미있게 복음을 들려주면 사람들도 좋아한다. 제지하는 사람들도 없다. 다만 복음을 전할 때 지혜롭게 해야 한다. 가령 ‘동성애는 죄악’ 등의 메시지를 강하게 얘기하는 경우엔 체포되는 경우도 봤다. 하지만 영국에서 전도가 법적으로 금지된 상황은 아니다.” 노형구 기자

Finance & Marketing
WISECALIFORNIA

2025 청소년 재정사관학교 **썸머**캠프

세상의 모든 아이 하버드는 다 못 보내도 백만장자로는 키울 수 있습니다

<청소년 재정사관학교>는 자라나는 우리 자녀들에게 올바른 재정관 설립과 지혜로운 재정 실천을 할 수 있도록 재정교육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재정사관학교>를 통해 아이들에게 특정한 재정개념, 돈나무 한그루씩을 심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프로그램은 9시 30분에서 4시까지 진행됩니다 (점심식사가 제공됩니다)

모든 세션은 영어로 진행됩니다. 부모님들의 참여를 환영합니다.

참가학생 중 두명을 선발하여 장학금을 수여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등록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LOS ANGELES
WED. JULY 30
WISE CALIFORNIA FINANCE
3435 WILSHIRE BLVD., 14FL
L A, CA 90010

BREA
THUR. JULY 31
Community Center
695 Medison Way
Brea CA 92821

문선영의 머니토크 PRESENT

YouTube

문선영의 머니토크

#머니컨셉 #영화속 토 이야기 #성경에서 얘기하는 재정 #손님을 섬겨 케이스 적용까지 살펴봅니다.

626.827.9599

SYMOMOONEYTALK@GMAIL.COM

한국일보 THE KOREA TIMES

중앙일보

가독일보

리더서울

Finance & Marketing
WISECALIFORNIA

BMO



48시간 동안 우려낸
진한 국물의 맛!

쌍영 투고 설렁탕

아침 **스페셜**

표고우거지해장국
or 통큰설렁탕
or 북어국

\$10⁹⁶ +tax

매일 | 7:00AM ~ 10:00AM



GOOD MORNING SPECIAL



화요일 **Only 투고스페셜**

- ▶ 곱배기설렁탕 **\$18⁵⁰** +tax
- ▶ 곱배기해장국 **\$18⁵⁰** +tax
- ▶ 곱배기도가니 **\$26⁵⁰** +tax

목요일 **Only (1+1) 투고스페셜**

갈비탕 or 도가니탕을 투고하시면,
표고우거지해장국을 무료로 드립니다.

\$22¹⁵ +tax

{ 갈비탕 or 도가니탕
& 표고우거지해장국



삼계탕 **스페셜**

기간: 7월 10일 ~ 8월 10일(한달간)

~~**\$18³⁵**~~ Reg.

\$14⁹⁹ +tax

Uber Eats **딜리버리**
합니다.

(213)277-1339 | (213)263-9446
2717 W. Olympic Blvd. #108, Los Angeles, CA 90006

단체주문 환영
주 7일 오픈 7AM ~ 10PM
(구)베버리순두부 자리